

리아호나

봉사하라는 구주의 부름에
응답시다, 4, 14, 20쪽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스도: 모든 기독교인에게
전하는 홀런드 장로의 말씀, 24쪽

이 시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54쪽

조플린에서 일본까지—자연재해 속에서 용기를 찾다, 60쪽





슬기로운 다섯 처녀,
로즈 데텍 달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다.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으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로다”라는
소리에 기름을 사러 떠났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마태복음 25:1~13
참조)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봉사하라는
구주의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도움이 필요한
때에 행동을 취하십시오

특집 기사

- 14 토마스 에스 몬슨: 의무가 따르는
부름에 응하면서
하이디 에스 스윈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생애에 있었던
일화들은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 20 봉사의 날을 기념하며
캐스린 에이치 올슨
세계 곳곳의 회원들이 봉사의 날에
지역 사회에 기여했다.

- 24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기독교인이 힘을 모아 신념과 동정심,
이해심을 발휘하는 호소
- 34 땅끝에서 신앙을 찾다
마이클 알 모리스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의 개종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 78 우리 종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마이클 오터슨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항

교회 본부 기사

- 8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구주를 기억하는 성찬


- 12 복음 고전: 여러분의 의무를
배우십시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19 교회 봉사: 그 한 아이를 위해
봉사하며
알 벤루원
- 3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자연재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7 가정의 밤 제언

표지
사람을 낚는 어부들, 사이먼 듀이



42

42 혼란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다
제럴드 코세 감독
신앙과 간증을 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원리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페일(사모아식
전통 가옥)



54

46 질의응답
저는 외설물에 중독되었어요.
외설물은 제 삶을 망치고 있어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8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용서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51 우리들 공간

52 희생, 그러나 기쁨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버는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가?

53 성전에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며
아드리안 프랑카 리아오
나는 내가 성전 결혼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옳은 선택을 먼저 해야
했다.

5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한 닷
데이비드 엘 벡, 일레인 에스 돌튼
새로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본부 청남, 청녀 회장의 이야기를
읽어 보십시오.

58 어머니의 모범
에린 바커
어머니는 편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사랑과 봉사를 가르치실
수 있었다.



68

59 특별한 증인: 여성은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60 기도, 감사 쪽지, 자연재해
머리사 위드슨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지만, 호노카와 매기는 하나님
시련의 시기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웠다.

62 현명한 생각

63 우리들 이야기

64 가정에서 초동회 적용하기: 저는
영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제 삶을
채우겠다고 선택하겠습니다

66 선지자를 따른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이디 에스 스윈튼

68 루테의 집
애덤 시 올슨
우리가 어디에서 살건 우리 집을
가족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몰몬경의 인물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벨스,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피퍼

고문: 케이시 알 에드워즈, 크리스토퍼 콜트 이세, 퍼지 마암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예림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넷, 라이언 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티,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켈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리아 맥클라한,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키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제드 이 퍼라스, 쟈 핀보로우, 알리사 스트롬, 폴 벤덴버그, 마리아 에이 워디슨, 엘리사 젠타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킴볼 보트, 콜린 헝클러,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엠 루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운, 콘니 바솔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낄슨, 게일 테이트 레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랄슨

통 권: 제550호, 제49권, 제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시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잡지)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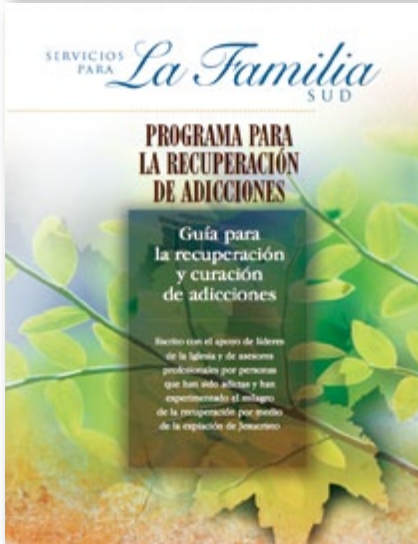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ugust 2012 Vol. 36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땅끝에서 신앙을 찾다"(34쪽)는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사는 몇몇 회원들의 개종 이야기를 보여 준다. 이들의 사진은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청소년

청소년들이 외설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46쪽 참조) 다른 유용한 자료로는 recoveryworkbook.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교회의 중독 회복 지도서가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38

가족, 30, 54, 58, 59, 63

간증, 34, 42, 51

개인 발전 기록부, 51

개종, 34

결혼, 53

게시, 38, 40, 41

교회 부름, 4, 19

기독교, 24

단합, 20, 24

데이트, 53

동정, 7, 19, 24, 58

매체, 46

모범, 14, 58, 63, 66

물문경, 34, 40

방문 교육, 7

봉사, 4, 7, 14, 20, 58, 66, 70

선교 사업, 34, 52, 78

성신, 19, 30, 34, 42, 48, 64

성약, 10

성전 사업, 53

성찬, 10

소망, 38

속죄, 48

순종, 52

신앙, 42, 48

여성, 59

역경, 30, 51, 60

예수 그리스도, 10, 24, 48

외설물, 46

용서, 48

우정, 64

의무, 4, 12, 14, 51, 73

자연재해, 30, 60

준비, 30

중독, 4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54

축복,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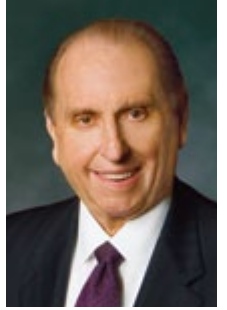
표준, 54

하나님에 대한 의무, 51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 63

회개, 46, 48

희생, 5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봉사하라는 구주의 부름

수 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후기 성도에게는 서로를 결속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받는 부름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 투덜거리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름을 주시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입니까?

소중한 봉사의 기회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그 진정한 목적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목표이기도 한 그 목적을 밝혀 주셨으며, 그것은 값진 진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¹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회원이라는 걸췌은 편한 외투라기보다는 책임이 따르는 예복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해의 왕국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기꺼이 걸으면 우리는 절대 세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울지 추기경 같은 신세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몸 바쳐 왕을 섬겼지만 권력을 모두 빼앗긴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왕을 모시는 데 쏟은 열정 중 절반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쳤더라면
이 나이에 발가벗긴 채 적의 수중에 놓이게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²*

하늘은 어떠한 봉사를 요구할까요?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³

존 테일러(1808~1887) 회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 봅시다.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⁴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선한 삶은 탐조등처럼 강렬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구자의 사지에 힘을 불어넣고, 눈 먼 자를 보게 하며,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⁵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주님은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⁶ 부자 청년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 이기심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으며,⁷ 오천 명을 먹이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⁸





또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⁹

부활하신 주님은 신대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¹⁰

우리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¹¹ 가까이에서 봉사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때 얻는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

주

1. 모세서 1:39.
2. William Shakespeare, *King Henry the Eighth*, act 3, scene 2, lines 456-58.
3. 교리와 성약 64:34.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164쪽.
5. 누가복음 22:27.
6. 누가복음 10:30~37; 또한 마태복음 22:39 참조.
7. 마태복음 19:16~24; 마가복음 10:17~25; 누가복음 18:18~25 참조.
8. 마태복음 1:15~21; 마가복음 6:31~44; 누가복음 9:10~17; 요한복음 6:5~13 참조.
9. 마태복음 6:33 참조.
10. 제3니파이 27:21.
11. 사도행전 10:38.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0], 20쪽)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의 재능과 능력을 크게 해 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 가족들에게 “봉사하라는 구주의 부름”에 답했을 때 겪은 긍정적인 경험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권한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벤자민 에이

목표 일곱 살이 되면서 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나는 선교 사업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나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며, 그곳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더 자주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천 명에게 대리 침례를 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는 정말 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 알기 위해 금식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는 토요일마다 멕시코 탐피코 성전에 가기 시작했다.

500명을 위한 대리 침례를 마친 후, 나는 조상을 위해 가족 역사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일이 정말 좋아서 이름을 찾느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이름 50개와 여덟 세대를 찾아냈으며 그분들 모두가 성전 의식을 받도록 도왔다.

나는 1,300번 이상 대리 침례를 받았고, 세미나리를 졸업했으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또 지금은 내 인생의 커다란 목표 중 하나인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몬스 회장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무 옆에 앉아 있는 소년을 보세요. 이 소년 곁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저녁 식사 때, 가족들에게 그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봉사를 했는지 한 가지씩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날마다 봉사한 일을 일지에 적어 두세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신앙, 가족, 구제

도움이 필요한 때에 행동을 취하십시오

상 호부조회 교사로서 우리의 목적 중 하나는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하는 자매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부탁하지 않더라도 방문 교사가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아요.” 봉사하기 위해 우리는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영감을 구할 때 우리는 지명받아 방문하는 각 자매의 영적 및 현세적 필요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시간, 기술, 재능, 신앙의 기도, 영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우리는 질병과 사망, 그밖에 특별한 상황에서 사랑이 가득한 봉사를 베풀 수 있다.¹

방문 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질병, 비상사태, 출생, 사망, 장애, 외로움, 기타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다. 그런 후, 상호부조회 회장은 파악한 내용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그녀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지원할 내용을 조정한다.²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으로 “기뻐할 일이 얼마나”(앨마서 26:1,3) 큰지를 알 수 있다.



성구에서

마태복음 22:37~40; 누가복음 10:29~37;
앨마서 26:1~4; 교리와 성약 82:18~19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9.5.1; 9.6.2. 참조.
2. 지침서 제2권, 9.6.2. 참조.
3. 헨리 비 아이어링,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10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교회 초기 시절에는 회원 수가 적고 한곳에 모여 있었기에 회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신속히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회원 수는 천사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교회는 계속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방문 교육은 주님의 모든 자녀를 돕는 그분 계획의 일부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처럼 큰 교회가 도처에 필요한 원조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곁편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주님의 종들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말씀했다.

“..... 모든 감독과 지부 회장은 상호부조회 회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각 자매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잘 아는 방문 교사를 통해 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자매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개인과 가족을 양육하는 감독의 부름을 도울 수 있습니다.”³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2. 내가 돌보는 자매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꺼이 도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2년 4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계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건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한 기초 공사

점은 시절, 저는 주택 건축 시 기초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폭폭 찌는 무더운 여름에 기초판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부어 넣을 거푸집을 설치하려고 땅을 파고 고르는 일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건설 장비는 전혀 없었고, 곡괭이와 삽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힘들게 기초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또한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기초판에 시멘트를 붓고 나면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작업을 진척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기초에 시멘트를 부은 후 거푸집을 떼어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초보 일꾼에게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거푸집 속에 철근을 조심스럽게 넣어 완성된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지루하고, 시간 낭비인 듯이 보일 법도 한

보강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겪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내려면, 신앙의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정성 들여 파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토대를 쌓는 견고한 기반은 바로 개인의 고결성입니다.

선택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옳은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굳건한 기반 위에 놓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은사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옳은 선택은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 일을 했는지는 그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수백 번이 넘는 그러한 선택을 해 가면서 신앙의 건축물을 세울 토대가 다져집니다.

모든 성약과 의식, 율리가 빠짐없이

갖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부어 넣을 철골조입니다.

끝까지 견딜 신앙을 쌓는 비결 중 하나는 신앙이 단단히 자리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꾸준히 섬길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간증은 깨지지 않을 영적인 힘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올라야 할 산”,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24쪽.

생각해볼 질문

- 개인의 고결성이 시험 받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를 강화시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LDS.org의 주제별 학습에서 “신앙”; 리차드 지 스코트,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신앙과 성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43~46쪽.



빈칸 채우기



1. “우리는 _____ 의 가르침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악의 길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엘 톰 페리, “구원의 능력”,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7쪽)

2.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가 _____ 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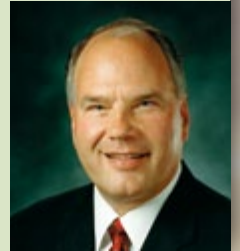


4. “이생에서 영생을 위한 훈련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_____ 을 겪게 됩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특별한 교훈”,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0쪽)

3. “우리가 받은 진리와 교리는 신성한 _____ 를 통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러[할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6쪽)



한 단어로 된 그 말

여러분은

1.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2. 험담하십니까?
3. 다른 사람을 따돌림 시킵니까?
4. 질투하십니까?
5. 해를 입히고 싶습니까?

그대신

1. 친절하십시오.
2. 용서하십시오.
3. 평온하게 대화하십시오.
4.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다.
5.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함시다.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궁홀히 여기는 자가 궁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6쪽에서 각색.



선지자의 약속

선지자의 약속



“이 대회에서 전해진 것들이 참됨을 성신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승인된

종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하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간구한다면 성신은 다시 그 참됨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올라야 할 산”,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26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구주를 기억하는 성찬

성찬은 매주 일요일에 행해지는 거룩한 신권 의식이다.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해 주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성찬 의식은 성찬식을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도 중요한 모임으로 만듭니다.”¹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모여 매주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20:75 참조)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함께 모인 회원들에게 빵과 물을 축복하고 전달하며,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성찬을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들은 침례 받을 때 하나님과 맺은 성약대로 살기로 한 다짐을 새로이 한다. 특히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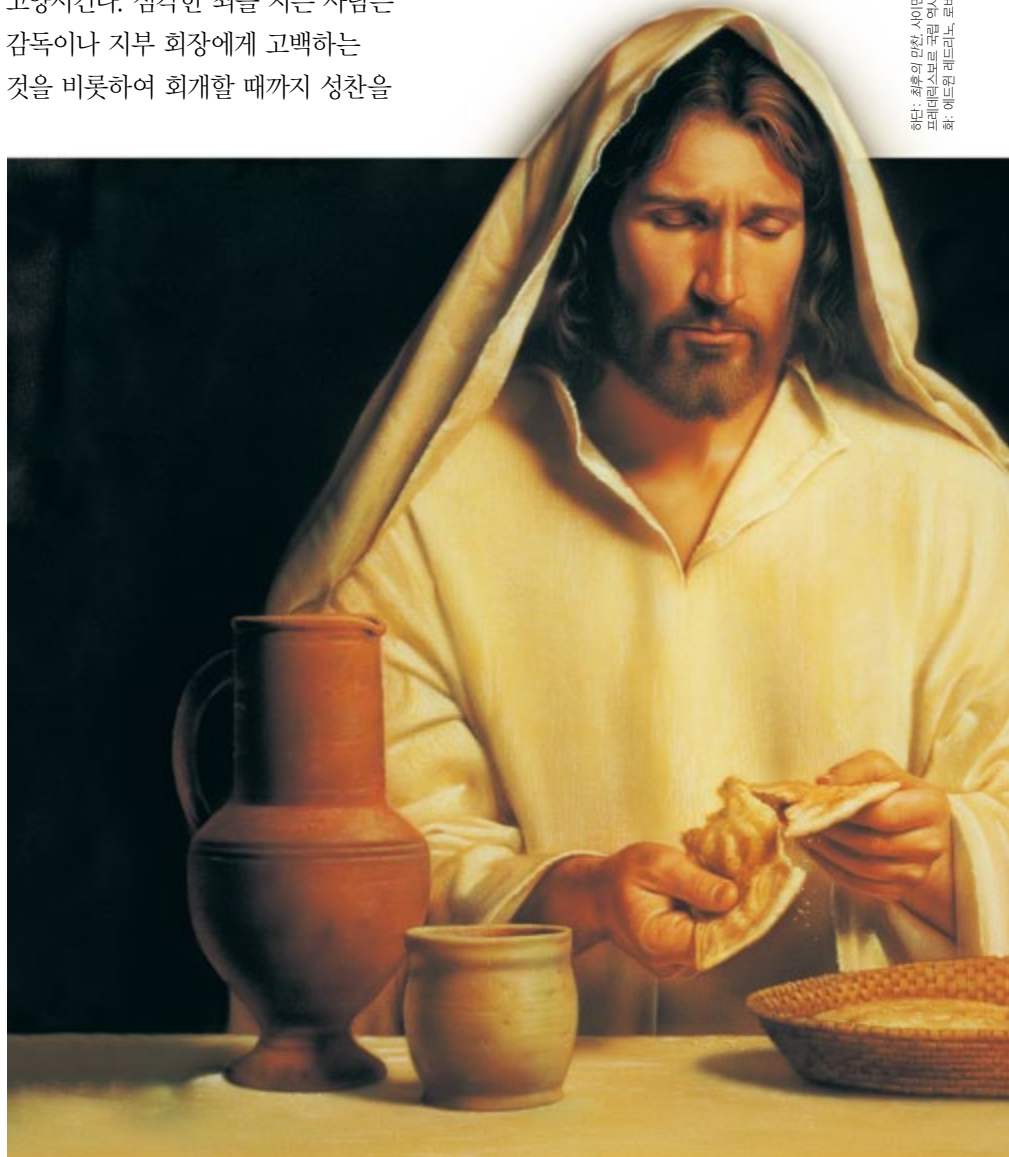
성찬을 취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에는 회개, 구주를 따르겠다는 소망, 그리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제3니파이 9:20)을 갖는 것이 포함된다. 매주 취하는 성찬은 자신을 성찰하고 재헌납하는 기회이다. 경건과 기도는 그런 경험을 고양시킨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고백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개할 때까지 성찬을

취해서는 안 된다.(제3니파이 18:28~30 참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면 죄의 용서, 성신의 동반, 성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된다.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성찬식과 성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7쪽.

그림: 최후의 만찬, 시에나 두이, 오른쪽: 최후의 만찬, 칠 향인리아 불로초, 덴마크, 홀레핀드, 프레데릭스보르 국립 역사 박물관의 영화를 찾아 개작함. 복사 금지; 그림: 뮐 피는; 사진집 화: 에드워드 레드리노, 로버트 윌비, 크리스티나 스미스



.....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고린도전서 11장 23~30절과 교리와 성약 27편 2절을 참조한다.

3. 아론 신권 소유자는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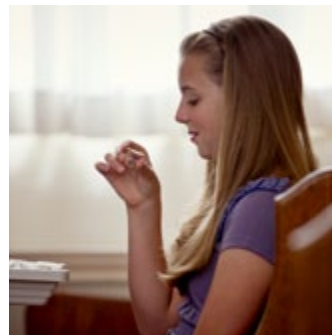
1.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전날 밤 십이사도와 함께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누가복음 22:19~20 참조)



2. 부활하신 후, 구주는 미 대륙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제3니파이 18:1~11 참조)



4. 성찬식 동안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주의를 흐트리는 행동을 삼간다.



5. 경건하게 성찬을 취하면서 구주의 삶, 모범, 가르침, 속죄를 기억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에게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죄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찬을 주님께 바치는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엘 톰 페리, 십이사도 정원회, “안식일과 성찬”,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쪽.

궁금증에 대한 답변

일요 모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여 성찬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라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 성찬은 회원들이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만 성찬을 취하는 것이 방문자의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다.

여러분의 의무를 배우십시오

의무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관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조셉 비 워스린
(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비 워스린은 1917년 6월 11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으며, 1986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이 기사는 1980년 10월 5일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일정원회 일원으로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영어로 된 전문을 보려면, ensign.lds.org와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를 참조한다.

대 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일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원하든 그렇지 않든,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흔히 의무란 자신이 행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믿고 계획하는 것 모두가 매우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공익을 생각하는 것이 의무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관한 청지기 직분을 상기시켜 주는 의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의무를 기꺼이 충실하게 받아들일 때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행복을 인생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행복은 목적 자체라기보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

유사이래 성공한 모든 남녀는 자신의 의무를 알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굳건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의무를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요구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부름에 충실했고 혹독한 박해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의무를 완수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는 범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후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분들은 의무를 맡는 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의무를 수행하면서 안락함과 일상적인 편의를 뒤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크나큰 희생과 고난이 수시로 따랐지만, 그럼에도 의무를 택하셨으며, 또 그 의무를 성취해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의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중에는 다소 판에 박힌 의무도 있고, 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의 핵심은 적절한 본보기를 보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겨운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 칭찬, 악수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흩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6:43~49).

형제 자매 여러분 “선을 행함에
지치지”(교리와 성약 64:33).
마십시오.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담대히
행하십시오. 해야 할 일을 다
하십시오. 두 번째 지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의무에 참되고 충실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하며
번영하도록 도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을 다해 간증합니다. ■

대문자(영문에 해당: 옮긴이)와 단락은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원한 의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일에서, 또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우리가 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의무의
핵심은 적절한
본보기를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겨운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을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의무가 따르는 부름에 응함

오래 전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이디 에스 스윈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저는
의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며 의무를 “신성한
것”¹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6대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삶과 제
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 일을 그분의 뜻과 영감에 따라 인도하기
위해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²

타인에 대한 봉사로 잘 알려져 있는 몬슨
회장은 해외 출장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복과
신발을 벗어 주고는 평상복과 슬리퍼를 신고
집에 돌아온 적도 있다. 그는 격려가 필요한
친구와 지인을 찾아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을
다반사로 했다. 병원과 요양센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축복했으며, 전화를 하라는 속삭임을
따르고 장례식에서 말씀한 적도 수없이 많다. 또
저녁 식사와 구이용 통닭, 따뜻한 격려의 글이
적힌 책도 전해 주었다. 교회 회장으로서는 모임과
약속으로 꽉 찬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것도 대부분 한 번에 한
사람씩 시간을 내 준다. 몬슨 회장은 사람들

향한 사랑과, 시간을 내어 그 사랑을 보인
행동으로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의무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몬슨 회장을 행동으로 이끄는 추진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서 나온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웃에게 겸손히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런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³
구주께서 느끼신 의무감은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제3니파이 27:13) 주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비롯된 결단력과 온화한 친절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사도행전 10:38).

몬슨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갯세마네
동산에서 의무를 수행하라는 요구가 주어졌을
때 그분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맨 위부터: 몬슨 회장은(부인 프랜시스와 함께) 보이 스카우트와 악수를 나누고, 선물을 받으며, 기공식에서 어린 소녀를 돕고, 연차 대회에서(부인과 함께) 청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보인다.

있고 장로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보여 주신 관심과 보내 주신 편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⁵

이러한 여러 경험에 대해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고 축복하는 데에는 작은 봉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질문, 짧은 격려의 말, 진심 어린 칭찬, 간단한 감사의 글귀, 짧은 전화 통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인식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오는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면, 여러 좋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⁶

의무를 수행하는 법을 배움

몬슨 회장은 이런 말씀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 주라고 권유하십니다.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⁷

우리의 선지자는 의무를 수행하려면 개인적인 야심이나 성공, 편리함 너머를 바라보거나 더 좋은 것을 보고 그에 대해 응답하는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 외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좇아야 합니다. 자신을 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삶의 의미를 배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는 의무와 유사한 개념이며, 진정한 기쁨이 따르는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⁸

그는 우정이 쌓이면 타인에게 봉사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믿는다. “친구는 공로를 인정받는 일보다는 친구들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친구는 걱정하고 사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손을 내밉니다.”⁹

여러 해 전에 몬슨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단을

*사는 동안 윈터스
회장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일어나 달라고
몬슨 회장이 부탁하자,
회원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모두가 다 일어났다.*



재조직하는 임무를 띠고 미국 와이오밍 주 스타벨리에 있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 의무 외에도 더 많은 일을 수행했다. 그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23년이나 봉사했던 이 프랜시스 윈터스 형제를 해임하면서 단순한 사랑의 표현으로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스테이크 대회 당일, 대회장은 회원들로 만원이었으나 모든 회원은 자신의 의무를 온 영혼을 다해 수행한 “이 고귀한 지도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몬슨 회장은 일어나서 윈터스 회장이 그 스테이크를 정말 오랫동안 감리해 왔으며 “그 고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인 힘의 근원”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전이나 그 후에 절대 해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하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윈터스 회장의 생애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일어나 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가히 놀라웠다. 모든 청중이 일어났던 것이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회원이 많았으며 몬슨 회장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훌륭하게 살아온 윈터스 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나타냅니다.”¹⁰

의무에 대한 선지자의 간증

몬슨 회장은 의무에 관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우리의 부름이 무엇이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가서 행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¹¹

“우리는 서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쳐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¹²

“우리가 사는 도시나 국가나 세계에서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우리 이웃의 가난 사이를 구분 짓는 선은 없습니다.”¹³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고
축복하는
데에는 작은
봉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공고히 해야 할 말들과 붙잡아야 할 손들, 독려해야 할 생각들과 고취시켜야 할 마음들, 그리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¹⁴

“창조주를 직접 만날 때, 아마도 우리는 ‘직책을 몇 개나 가졌었느냐’하는 질문 대신 ‘몇 사람이나 도와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¹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¹⁶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¹⁷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장애물과 신앙과 기적”,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20쪽; “Happy Birthday”, *Ensign*, Mar. 1995, 59.
2. 토마스 에스 몬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감”,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0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다리를 짓는 사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68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힘써 노력하며”,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6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의무에 대한 부름”,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2쪽 참조.
6.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20~121쪽.
7. 토마스 에스 몬슨, “성탄절 선물”,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2쪽.
8. Thomas S. Monson, “The Lord’s Way”, *Ensign*, May 1990, 93.
9.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9쪽.
10.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의 영원한 가정”,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0쪽.
11. 토마스 에스 몬슨, “그들은 기도하고 갑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7쪽.
12.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8쪽.
13. 토마스 에스 몬슨, “풍요한 삶을 찾아서”, *성도의 빛*, 1988년 8월호, 6쪽.
14. 토마스 에스 몬슨, “굴뚝 그 기초”,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8쪽.
15. Thomas S. Monson, “Faces and Attitudes”, *New Era*, Sept. 1977, 50.
16. 토마스 에스 몬슨, “창문”,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85~86쪽.
17. 토마스 에스 몬슨, “주님의 길”,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4쪽.

그 한 아이를 위해 봉사하며

알 벤루원

대 학에 입학한 후 나는 곧 두 명의 신입생과 친구가 되었다. 한 명은 목동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농부였다.

두 사람은 미국 서부의 전형적인 시골 청년이었고 나는 동부 해안 출신의 도시 청년이라 우리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지만 오히려 잘 어울려 다녔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들은 고향 목장과 농장으로 돌아갔으며 나는 사업에 진출했다.

나이가 들면서 연례적인 성탄절 카드와 이따금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알 수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나는 보이 스카우트 단장으로 두 번이나 봉사했다. 이후 유아반 지도자 보조로서 “봉사”를 마쳤을 때, 두 친구는 감독단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어리석게도 내 부름과 친구들의 부름을 비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달갑지도 않고 무시를 당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쯤 되자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 직분에 부름 받는 것을 보면 며칠간 마음이 뒤숭숭했다. 누군가가 와드나 스테이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때마다 사탄은 내게 나는 합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부름을 받기에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속삭였다. 기도와 연구로써 그러한 생각을 지혜롭게 떨쳐 버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자신의 가치 문제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내가 나이 오십에 “단지 장로”로서 청소년 농구 게임 심판이나 봐 주는 데 비해 친구들은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이 나이 때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에 원기 왕성한 일곱 살짜리 아이들로 가득한 초등학교에서 아내를 돕고 있을 때였다. 초등학교의 함께 나누는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반원 중 한 아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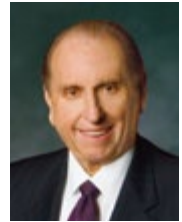
몸을 웅크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는 몸이 안 좋은 것이 분명했다. 영은 내게 그 아이를 다독여 줘야 한다고 속삭였고 나는 그 아이 곁에 앉아 무슨 일인지 조용히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몹시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나는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중이었는데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주 음성 듣네”를 부르자 정말 놀라운 빛과 따뜻함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느껴졌다. 영원한 사랑의 팔이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랄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린 소녀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안을 나를 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적 이해력이 열려 나는 그 소녀, 그분의 모든 자녀, 그리고 나에 대한 구주의 사랑에 대해 간증을 얻었다. 나는 그분께서 나를 신뢰하시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봉사하도록 하셨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곳에 내가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봉사할 때도 그분의 손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나는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에든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봉사가 필요할 때에 영의 속삭임을 느끼려 하며, 내가 있었으면 하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곳에 가 있기 위해 합당해지려고 노력한다. ■

주

1. 켈리 디포드,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2011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28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창조주를 직접 만날 때, 아마도 우리는 ‘직책을 몇 개나 가졌느냐’ 하는 질문 대신 ‘몇 사람이나 도와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을 섬김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되기까지는 절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Thomas S. Monson, “Faces and Attitudes,” *New Era*, Sept. 1977, 50.



영국 런던



인디아 방갈로



봉사의 날을

캐스린 에이치 올슨
복지 서비스

전 물 청소, 바닥 걸레질, 학생 가르치기, 식품 모으기, 이민자 돕기, 미망인 방문, 잡초 제거, 학교 페인트 칠. 이러한 일들은 교회 회원들이 복지 프로그램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봉사의 날을 실시하라는 제일회장단의 요청에 응하여 지난해에 있었던 수많은 봉사 프로젝트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봉사를 한 사람이나 봉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뜻깊은 영향을 미쳤다. 세상 곳곳의 지역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했다.

영국 런던

런던에 사는 교회 회원들은 2011년 8월에 폭동이 일어난 토트넘을 청소하는 것을 기념 행사로 삼았다. 교회 회원들은 한 지역 공원에서 잡초를 뽑고, 화단을 만들고, 쓰레기를 치웠다.

봉사 활동은 아동병원에서도 펼쳐졌다. 병원의 정원 오솔길을 청소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했다. 진행을 도왔던

샬럿 일레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빗자루로 쓸어 내는 것 같은 작은 일조차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작은 일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루디 샴페니는 봉사를 권유한 제일회장단에게 왜 그런 영감이 주어졌는지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제 생각에 이 지역 사회에 다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서로 더 가까워지라고 이러한 요청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 참 좋아요.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일이지요. 이 일을 통해 간증이 강화되었고, 지역 사회에 더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중국 홍콩

중국 홍콩 스테이크 청소년 담당 지도자들은 청소년 평의회에 나름대로 봉사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했다.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에 무엇이



부룬디 부종부라

기념하며

필요한지 알아본 후, 지역 내 한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125명가량 되는 청소년들이 80명 남짓한 초등학생에게 재능을 키우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며, 가족 모임을 하고, 진정한 우정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쳤다.

스테인크 청년 회장인 에니타 숨은 이렇게 말했다. “이 활동이 끼친 영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린이들과 함께했던 활동들은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청소년들이 영원한 축복이 될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가나 아크라

가나 아크라에 사는 회원들은 봉사의 날에 참여하여 학교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고, 거리와 배수로를 쓸었으며, 병원과 의료원 앞마당을 깨끗이 치웠다.

가나 아크라 크리스천스보르그 스테이크의 엠마 오와수 안사는 봉사의 날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관여했다. “교회 회원이 함께 모이자 한마음으로 단합하게 되었고 봉사와 같은 원리를 따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회원들은 함께 모여 간증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남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봉사의 날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며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단합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복지 사업에서 저를 지도해 준 두 번째 복음 원리는 단합에서 얻는 힘과 축복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엮어 주십니다.”¹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비 내리는 10월, 곳은 날씨에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내 다섯 개 스테이크에서 모인 후기



미국 버지니아 폴스처치



자애로운 마음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주님 또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랑은 여러분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또 생을 다할 때까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말한 물몬의 말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증인”,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8쪽.

성도 1,601명은 한 양로원에서 총 10,234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미리 수집한 옷가지와 식품 및 위생 키트를 전달했다. 또 정원을 손질하고, 벽과 벤치에 페인트를 칠했으며, 장기 자랑도 했다. 몇몇 자매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머리와 손발 관리를 해 주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열네 살인 로치오 비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특해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상파울루 스테이크 회원들은 설탕, 식용유, 쌀, 콩 등을 거둬 두 자선 단체에 보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음식 저장에 관한 기초 원리에 관해 자선 단체 대표자들을 훈련했다. 회원들은 또한 스테이크 회원 및 지역 시민에게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도록 돕는 교육 및 재정, 고용 훈련을 하는데 자원하여 봉사했다.

“우리가 초대한 지역 주민들은 교회에서 한 일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호감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라고

스테이크 회원인 카티아 리베이로는 말했다. “회원들 간에 단합과 봉사의 영이 함께했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폴스처치

미국 버지니아 폴스처치 회원들은 노숙자 쉼터 두 곳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꼈다. 아테나 알바레스는 솔로 벽을 닦으면서 와드 회원에게 말했다. “힘든 한 주였지만, 이 벽에다 불만을 쏟아 내니 기분이 좋아져! 우리는 모두 사는 동안 봉사가 필요할 때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야.”

또 다른 와드 회원인 앤 소렌슨은 이렇게 말했다. “지역 사회와 친해하려면 봉사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일에 뭔가 기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를 몰고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강좌를 들은 사람들을 떠올릴 거예요. 또한 그분들이 삶을 개선하려 애쓸 때 우리가 한 일로 자신은 외톨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도쿄로자와

교회 회원들은 도쿄로자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50명의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저장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2011년 3월에 일어난 지진을 겪었기에 자연재해 대비법, 특히 식품 장기 보관법을 몹시 배우고 싶어했다.

“동일본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지만 사실 저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요.”라며 한 참가자는 말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어 기뻐합니다. 음식을 보관할 장소를 찾아야겠어요.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겠어요.”

일본 무사시노 스테이크 회원인 아키히토 수다는 회원들이 위기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재난 대비 물품들을 보여 주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감동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지역 사회를 밝혀 줍니다.”

에스토니아 탈린

탈린에 사는 교회 회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도와 집을 보수하며 하루를 보냈다. 일부는 장작을 깨고, 삽으로 석탄을 퍼 담았으며, 다른 몇몇 회원들은 카펫을 청소하고, 커튼을 바꿔 달고, 창문과 벽을 닦아 냈다.

마일라 찬은 가족과 함께 한 할머니를 방문하여 장작을 마련해 드렸다. “엄마로서 저는 우리 가족이 것처럼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자신의 문제는 완전히 잊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압니다.”

마일라 찬은 “제 일을 제쳐 두고,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람들을 도우면서 희생에 따르는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또는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도울 뿐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돕습니다.”

수고의 열매

세계 각지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봉사함으로써 간증이 자라나고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게 된다는 점을 배운다.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봉사하면 그에 따른 축복을 받는다고 확인했다.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이 바친 노력과 부지런함과 희생을 눈 여겨 보십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도움을 준 사람들 및 그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도왔던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쏟은 수고에서 맺히는 그 열매를 축복으로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²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25쪽.
2. 헨리 비 아이어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26쪽.

궁금증에 대한 대답

물 몬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보면서 후기 성도만 돕는지, 아니면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돕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물론 양쪽 모두를 돕는다. 이웃 앞마당에 깔린 낙엽을 갈퀴로 모아 없애는 일이든,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수 톤에 달하는 구호품을 보내고 나누어 주는 일이든 간에, 봉사할 때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종교나 문화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쓴다.

지역 사회의 평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다양한 봉사의 날 프로젝트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멈춰 서서 참가자들에게 교회에 관해 질문했고, 회원들은 간증을 나눴다.

세계 몇몇 곳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교회 회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일례로, 봉사의 날에 관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콩고 민주 공화국의 루분바쉬 키상가 지구 추장은 다른 종교인들에게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물몬’의 모범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런던에서 교회 회원 300명이 참여한 봉사에 대해 보리스 존슨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 사회를 생각하는

런던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리를 지어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지사 대널 멜로이와 버지니아 주지사 로버트 맥도넬은 자신들의 주에서 실시한 봉사의 날을 칭송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멜로이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봉사를 기념하는 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종교나 배경에 관계없이 주민 모두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기사는 2011년 3월 10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모인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친 구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도덕적 타락과 죄악이 만연하여 특히 젊은 층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잘 아십니다. 외설물, 빈곤, 약물 남용과 낙태,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성적 타락(이성애이든 동성애이든 간에), 거친 언행과 폭력, 잔인함과 유혹 등에 대해 여러분과 저는 걱정을 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딸아이들 휴대전화나 아들들 아이패드(iPad)만큼이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진하여 짊어진 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죄의 세력에 맞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믿고 담대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마서 8:31)

여러분은 그러한 확신 아래 봉사하고 전도, 가르침과 일에 힘쓰고 계시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로마서의 그 다음 구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궁금증에 대한 대답

후기 성도는
기독교도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홀랜드 장로가
설명했듯이 “우리는
성지에서 흠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던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의 거룩한
여호와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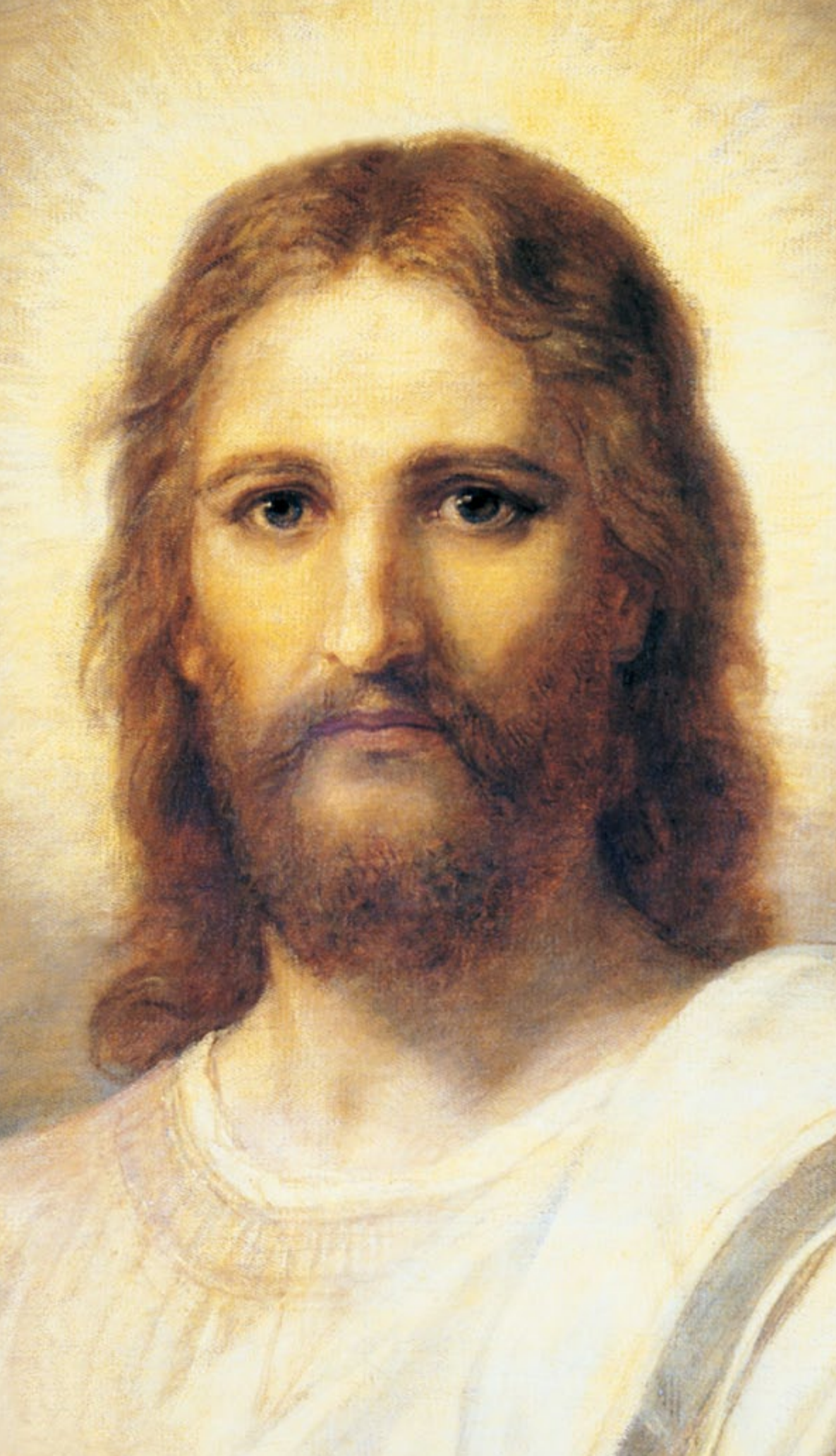
세상 곳곳의 모든 이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내지 않도록 더욱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로마서 8:32, 35, 37)

신학적 대화

여태껏 개신교와 후기 성도는 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초 젊은 조셉 스미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한 시현이 있은 후, 세상에 나아가 그에 관해 담대하게 외친 이래, 우리는 상호 간의 교류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990년대 말 이후부터 후기 성도와 개신교 학자들, 교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고무적이며 건설적인 신학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하늘의 섭리가 일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해를 얻으려는 정직한 노력이었으며, 쌍방 간에 존재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나 오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참여자들이 통상적인 종교적 교류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평온한 힘에 이끌려 깊고 심오한 자극을 주고 감동을 나누었던, 사랑의 수교였습니다.

2000년 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진하여 짊어진
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죄의 세력에
맞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식적 대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대화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은 모종의 범례나 모형, 참고할 사항을 모색했습니다. 이때 일부 후기 성도들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과연 대결이나 논쟁, 아니면 토론을 위한 것인가? 만남의 결과, 승자나 패자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솔직하고 진지하게 임해 줄 것인가? ‘저쪽 사람들은 이러한 대화를 기독교 팀에 들어가려 하는 우리의 ‘탐색전’쯤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시도는 회의적인 방관자들이 용인할 수 있도록 물문어즘을 ‘고쳐’ 전통적인 기독교처럼 만들려는 야심찬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일부 개신교 신도들도 회의를 품었습니다. ‘저쪽 사람들’의 의중은 진심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전도를 시도하려는 것인가? 전통적 기독교 대부분이 채택한 근래의 신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저쪽 사람들’이 신약을 믿는 기독교도라고 할 수 있는가? 양쪽 모두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릇된 신학’을 얼마만큼 상쇄할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주제들은 대화의 일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긴장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형식적인 분위기는 더욱 우호적이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의견 불일치 속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진정한 모습의 형제애와 자매애, 반대 의견에 대한 존중, 다른 신앙을 따르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의무감(꼭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즉 자기 쪽 교리와 관행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상대의 것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책임 의식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에는 “상대방의 굳은 믿음을 존중하는”¹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방대한 기독교계와는 조직과 지휘 체계가 다르다고 인식했기에 후기 성도 교회는 이런 대화에 교회의 공식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우리는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가정과 결혼생활을 강화하고, 미디어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자연재해 시 인도적 구호 노력을 베풀고, 상존하는 빈곤 문제를 다루며, 우리 시대의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기독교도의 양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에 개신교 친구들과 손을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입장에서의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교리적 차별성을 타협하거나 믿음을 포기할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해를 받거나, 우리에게 없는 신조로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결의가 훼손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악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기를 갈망합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일선 봉사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반과 동반자를 늘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가정과 결혼생활을 강화하고, 미디어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자연재해 시 인도적 구호 노력을 베풀고, 상존하는 빈곤 문제를 다루며, 우리 시대의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기독교도의 양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에 개신교 친구들과 손을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여러분이나 저, 또는 이 땅의 책임 있는 성직자가 연단 앞에 서서 진리라고 믿는 교리를 설파하지 못하는 날이 도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성한 결혼에 관한 문제를 위시하여 최근의 사회 정치적 행태와 그로부터 야기된 법적 움직임을 볼 때, 그 예방을 위해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²

기독교계가 단합하여서 한 목소리를 낼수록 우리는 이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 곧 기록하지 못한 의식을 수시로 따름으로써 더욱 단합된 적에 맞서지 못하는 집에 대한 구주의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누가복음 11:17 참조)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스도

이런 일부 내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의견을 달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불화가 없기를 바라며, 친구 여러분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가 기독교도라는
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Mormon.org 웹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 메뉴의
“About Mormons”와
MormonNewsroom.org
웹사이트에서 “Christianity:
Following Jesus in Word
and Deed”, 고든 비 핑클리,
“예언자의 간증,” 성도의 벗,
1993년 5월호, 93쪽을 참조한다.

후기 성도 교회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지에서 흠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던 역사 속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의 거룩한 여호와이며 유일한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그분은 신성함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필멸의 경험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었던 아들이자 아들이었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몰몬경에서 표현한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몰몬경 표제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와 성신과 하나이며, 그 세 분이 하나임을 증거합니다. 즉, 영으로 하나이고, 힘에서 하나이며, 목적에서 하나이고, 목소리에서 하나이며, 영광에서 하나이고, 뜻에서 하나이고, 선함에서 하나이며, 은혜에서 하나입니다. 다만 신체적 형상 면에서만 별개일 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단합된 면에서 하나입니다.(제3니파이 11:36 참조) 그리스도는 신성한 아버지와 동정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분으로, 열두 살 때부터 실제 그분의 아버지 사업에 임했으며, 그 일을 하는 동안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오는 모든 이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드린 모든 기도, 그분이 하늘에서 이끌어 내신 모든 기적,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업에 관해 증거합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분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죄인과 그러한 죄악에 대한 대속 제물로 갯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구원을 위한 거룩한 계획을 이루려고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 질병을 짊어졌으며, 온갖 고통으로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몰몬경 앞부분에서 한 니파이 선지자는 “보니, [예수]가 십자가 위에 들리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더라.”(니파이전서 11:33)라고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바로 그 주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었”(제3니파이 27:13~14; 또한 교리와 성약 76:40~42 참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교리와 성약 46:13) 하는 것은 영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이라는 육신의 끈과 지옥이라는 영혼의 굴레를 풀고, 육신과 영혼에 불멸이라는 미래를 열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미래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때 비로소 그 영광과 장려함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사도행전 4:12 참조)

우리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이번에는 영광과 권능, 위엄 가운데 만 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분이 곧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게” 하는
것은 영의 은사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베드로전서 2:25)이 되시는 분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³

일반적으로 후기 성도들은 부지런한 사람들, 일에 충실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제자의 신분”이라 부르는 의로운 사업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정확한 잣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같이 참된 신앙은 언제나 그 충실함으로 그 자체를 드러낸다고 믿습니다.(야고보서 2장 참조) 우리는 청교도들이 성약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걸[음]”(교리와 성약 20:69)을 걸어야 한다고 깨달았을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리에 다가갔다고 가르칩니다.

구원과 영생은 값없이 주어집니다.(니파이후서 2:4 참조) 실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입니다.(교리와 성약 6:13; 14:7 참조)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신앙개조 제4조)을 선포하고 실천함으로써, 즉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니파이후서 2:8; 또한 니파이후서 31:19; 모로나이서 6:4 참조)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열매로 회개, 침례를 포함한 복음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 스스로 모든 불경함을 거부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누가복음 9:23) 하며, 계명 곧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요한복음 14:15 참조) 동기를 부여하는 감사의 마음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린도전서 15:57)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몰몬경의 한 선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고]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생명을 고대[하게 하려 함이러.]”(니파이후서 25:26~27)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세상에 전하는 이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구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다소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기독교도의 양심에 대한 호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공통된 헌신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난제들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도의 양심에 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호소에 부응하여 단합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해 전, 팀 라헤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종교적인 미국인들이 상호 공유하는 도덕적 관심이라는 명분에 따라 함께 일한다면, 우리 선조가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믿었던 시민 도덕 표준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 우리나라에 사는 종교적인 모든 시민은 다른 종교 신도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존중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 상대의 신조를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 나라의 세속적인 사람들에 비해 서로가 더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는 있다. 지금은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모든 시민이 공동의 적에 맞서 뭉칠 때다.”⁴

물론 다른 사람에 관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면 늘 기존의 관점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 세계관에 대해 얼마간의 재고, 재정리, 재구성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피부색, 인종, 사회 동료, 교회나 회당이나 사원 너머 또 신조와 신념을 담은 선언서 너머를 바라볼 때, 또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즉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려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뭔가 훌륭하고 값진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각박하고 어수선한 세상에서 기독교적 신념과 기독교인의 동정심, 기독교인의 이해심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죽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던 184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인류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들을 억눌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 방식이 낫다고 설득할 수 없다면 저는 그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을 따르도록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성의 힘으로 설득할 것입니다. 진리는 그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일을 그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일을 그치고서, 그들 가운데 우정과 단합의 원리를 키워야 합니다. 복천년이 도래하여 그리스도가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기에 앞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정과 단합의 원리를 키워야 합니다. 복천년이 도래하여 그리스도가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기에 앞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⁵

저는 우리 경전 중 두 작별 인사에서 표현한 사랑을 여러분께 전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브리서 13:20~21).

이번에는 몰몬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음과 ……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또 그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고 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모로나이서 9:25~26) ■

주

1. A term introduced in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1992).
2. Dallin H. Oaks, “Preserving Religious Freedom”(speech, Chapman University School of Law, Feb. 4, 2011), newsroom.lds.org/article/elder-oaks-religious-freedom-Chapman-University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4. Tim LaHaye, *The Race for the 21st Century*(1986), 109.
5.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499.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자연재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많은 재해와 세상에서 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적인 함정과 악을 피할 수 있는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재해는 무작위로 닥치며 옹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지만, 저는 재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에 기반을 두고 준비를 하면 어떠한 폭풍우도 견딜 수 있습니다.

폭풍 전: 준비를 가족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2005년 9월에 저는 텍사스 주 휴스턴 등 미국 일부 지역이 포함된 북미 남서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 만에서 유사 이래 관측된 사이클론 중 가장 강력했던 허리케인 리타가 우리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교회의 비상사태 대응을 감리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교회 본부의 복지 및 인도주의 지원 대표, 비상사태 대응을 맡은 지도자들과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할 때,
성신은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인내하며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독의 창고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허리케인이 닥친 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등 모든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교회는 잘 조율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참여자들은 영감 어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지역 스테이크 회장 중 한 분은 허리케인이 닥치기 8~9개월 전쯤에 스테이크 회원들을 준비시키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영의 속삭임은 분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원들은 교회에서 제시한 기본 대비책을

따랐습니다.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그 어떤 스테이크 회원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원들은 필요한 물품을 모아 두고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상황은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훨씬 나았습니다. 그들은 영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저와 제 가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이 닥치기 3개월 전쯤, 우리는 발전기를 수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허리케인으로 단전이 되었을 때 냉장고와 냉동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소형

재난 속에서 위안을 주고받는 것에 관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이번 호 60~61쪽에 실린 두 명의 젊은 생존자가 전한 영감 어린 간증을 살펴보십시오.

앞 쪽: 인부들이 2010년 1월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 잔해를 살피고 있다.

허리케인 리타의 맹습 전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에 있는 발전기를 점검해 보니 작동하지 않아서 허리케인이 닥치기 훨씬 전에 고쳐 두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닥치자 우리 가족, 와드 회원, 이웃 모두가 우리 집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발전기를 고쳐 놓은 것이 커다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준비의 원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모 여러분, 준비하는 일과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가족 기도에 자녀를 참여시킬 때 여러분은 가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준비할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가 뭘 해야 하죠?'라는 질문이 가족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가정의 밤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후 계획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더욱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치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영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것을 보며 계시가 실현되는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동안: 가족을 위해 받은 계시를 따르십시오

허리케인이 접근하자 우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대피해야 하는지 마는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간구했습니다. 영은 제게 전 지역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를 주는 대신 각 스테이크 지도자, 감독단, 가족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각자 영감을 받도록 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전개되자 영은 각 가족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그들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바로 그 경로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회원들에게 대피하라고 권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 내외는 회장님의 여동생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은 진로를 바꾸어 다시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허리케인 속으로 대피한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영감이 이렇지?"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이 스테이크 회장님 내외는 허리케인에 대비해 집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여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척들이 허리케인에 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고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입은 피해는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장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2011년 5월에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국 미주리 조플린에서 몰몬 도움의 손길 자원 봉사자들이 돌더미를 살피고 있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대피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을 안전하게 건넌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일부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들은 대피하라는 영감을 받아서 대피했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가족, 와드, 스테이크가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복음으로 고통을 이겨 내십시오

때때로 선한 사람들이 재해로 피해를 봅니다. 주님은 고통도 그분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부의 한 스테이크센터는 최근에 토네이도로 부서졌습니다. 그 토네이도는 스테이크 회장님 집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분과 가족은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것뿐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것은 애석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분명히 진리이며, 이 사실을 이해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러한 재해 중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그러한 일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속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삶이 참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가 왜 이곳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이 영원한 관점 덕분에 고통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을 없애 줍니다.(고린도전서 15:55 참조)

오래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 우리를 …… 능히 건져내시겠고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가 [여전히]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나이대]”(다니엘 3:17~18)

마찬가지로 1800년대 중반에 회복된 교회의 많은 개척자들은 도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북미 대평원을 횡단하려 했습니다. 몰몬경은 죽임을 당한 선한 사람들을 묘사하며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가서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임이러라.”(앨마서 24:22)라고 가르칩니다.

각 경우에서 사람들은 신앙으로 죽음에 맞섰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평화 덕분에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생의 목적이 될 만한 좋은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죽는 것이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엄연한 이치입니다. 복음 계획을 알면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육신이 무덤에 묻힐지라도 가족 관계는 계속됩니다. 전체적인 계획에서 보면 죽음은 영원한 파괴가 아닙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죽기 위해 살며, 다시 살기 위해 죽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때 이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죽음에만 걸맞은 표현입니다.”¹ 영원한 관점은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화의 일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재난은 일어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고 구할 때 주님은 성신을 통해 우리가 준비하고 견디며 어떤 자연재해에서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

주

1. 러셀 엠 벨슨,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합시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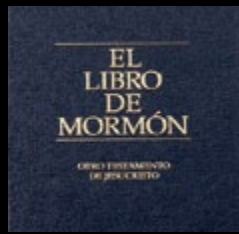
땅끝에서 신앙을 찾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차 가운 비글 해협이 한 작은 섬에 르에클레퇴르(Les Eclaireurs) 등대가 파수꾼처럼 우뚝 서 있다. 프랑스어로 '정찰하는 사람' 또는 '깨우치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르에클레퇴르는 외딴 곳에서 10초마다 불빛을 발한다.

북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티에라 델 푸에고 군도의 끝자락에 있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읍 '우수아이아'가 있다. 남방 145킬로미터에는 케이프 혼이 있으며, 그 너머는 얼어붙은 남극대륙이다.

현지인들이 "땅끝"이라 부르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복된 복음을 르에클레퇴르에 비유한다. 등대와 같이 복음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 그들이 세상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신앙과 우정의 해안으로 무사히 상륙하도록 이끈다.



물문경을 통해 하나님은 "제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우수아이아에서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길레르모 레이바(위 중앙)는 말한다. 위 오른쪽: 르에클레퇴르 등대와 우수아이아 사진들.

나는 답을 찾았다

길레르모 자비에 레이바는 2007년에 겪은 이혼의 아픔을 기억한다. 그는 아파트를 새로 구해야 했으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어린 아들 홀리안을 보는 일도 매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공허하고 쓸쓸했다.

그는 말한다. "무척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길레르모는 기도를 울리며 도움과 응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충분히 저를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 새 아파트 바깥마당에서 아들과 같이 놀고 있을 때,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두 젊은이가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말을 건 것이다.

"한 분은 인사를 건네며 제게 종교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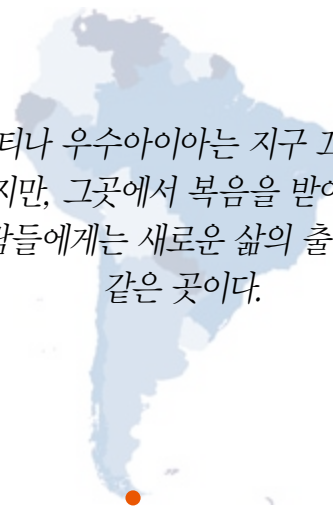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긴 하지만 훌륭한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책 한 권을 줄 테니 읽어 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길레르모는 선교사들이 표시해 준 엘마서 32장을 읽기 시작했다.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커다란 영혼의 기쁨을 금세 느꼈습니다. 그 책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길레르모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더는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침례를 받을 생각은 없다고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선교사들의 방문과 물문경 읽기 과제를 마다하지 않았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는 니파이 선지자가 “그처럼 쉽게 [자기를] 괴롭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니파이후서 4:18) 얼마나 비탄에 빠졌는지를 알고 영혼에 슬픔을 느꼈다. 길레르모는 말한다. “저 역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괴로웠습니다.”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는 지구 꼬트머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과 같은 곳이다.



책을 읽으며 그는 낙담과 어둠에서 구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앨마서 19:6)으로 인도되는 것을 느꼈다.

물문의 물가에서 제시된 침례 성약을 읽는 동안 그는 합당한 신권 권세로 집행되는 침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씨앗이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 꺼릴 것이’ 뭐가 있겠는가?”(모사이야서 18:10) 하고 자문했다.

길레르모는 말한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평화를 느꼈으며 답을 찾았습니다. 물문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사실이 바로 제가 기도로 구해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찾으려 했다.

아만다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는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1990년대 초, 로블레도 가족은 네 자녀를 데리고 아르헨티나 북서 지방에 있는 멘도자를 떠나 우수아이아로 이사했다. 그들은 2년 뒤에 교회를 소개받았을 때, 전임 선교사들의 가르침이나 영성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아만다는 후기 성도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오른쪽:(두 딸 바바라와 이레네와 함께한) 아만다 로블레도와 리카르도 로블레도 가족에게 교리의 정수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이 교리는 그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일조했다.



2009년 3월, 침례를 받으며 그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영적 재탄생을 경험했다. “침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제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가 필요했다

아만다 로블레도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서 겪은 육체적 아픔에 대한 영적 치유를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리카르도는 형이 죽고서 진지한 종교적 의문을 품게 되었지만 답을 구할 수 없었다.

그러한 질문 중 하나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답을 구하고 그런 교회를 찾다가 마침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한 탐구 과정에서 그들은 여러 종파의 교회에 참석했으며, 다양한 종교 교리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강화해 주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러나 그녀와 리카르도, 아이들 모두가 배운 내용에 공감했다.

“저는 선교사들이 가르칠 때 영을 느꼈어요.” 당시 열한 살이었던 딸 바바라는 말한다. “아울러 저는 우리가 가족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점이 좋았어요.”

리카르도는 선교사 토론에 참여하고 물문경을 읽으며 교회에 참석하다 보니 “우리가 구했던 응답, 즉 전세의 삶과 침례, 그리스도의 신성함, 인간의 불멸성, 복음 의식, 결혼과 가족의 영원성에 관한 대답 모두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로블레도 가족에게 회복된 복음의 정수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교리였다.

“바로 그 순간 개종하게 되었어요.” 첫 토론 뒤 3주도 안 되어 침례를 받고 지금은 지방부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는 리카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49세 된 형을 잃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전 사업을 통해 형을 개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화평과 행복을 주었어요.”



우수아이아는 땅끝에 있지만 마르셀리노 토센처럼 이곳에서 복음을 찾는 이들에게 “이 땅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아만다는 오래잖아 아들 한 명과 같이 침례를 받았다. 아만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늘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죠. 선교사들이 가족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을 때,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리카르도와 아만다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 의식을 받은 후,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가족으로 인봉되고,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한 의식을 마치고, 자녀 중 세 명을 전임 선교사로 보내며 리카르도와 아만다는 큰 기쁨을 얻었다.

“교회 회원으로 누리게 된 커다란 축복 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아만다는 말한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

마르셀리노 토센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었으며, 종교에 관한 대화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날씨가 포근하던 1992년 1월 어느 날, 문을 두드린 전임 선교사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 결정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잔니 장로와 홀 장로는 영의 인도에 따라 일했어요.”라고 마르셀리노는 회상한다. 첫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두 장로는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권유했으며, 침례를 받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저는 침례를 받지 않았했습니다. 당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마르셀리노는 그렇게 대답했다.

선교사들은 물문경을 주며 몇 구절을 읽어 보라고 했으며, 그날 밤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에 관해 기도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그대로 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토론에서 잔니 장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우리가 가르친 내용이 참된지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여쭙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가 기도를 하자 “제 마음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겪어 보지 못했었죠. 저는 기도를 마치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라고 마르셀리노는 밝혔다.

기도 중에 뭔가 느낀 바가 있었는지 잔니 장로가 마르셀리노에게 물었다. 마르셀리노가 없었다고 하자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주 강하게 영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니 참 이상하네요.”

그제서야 마르셀리노가 느낀 바를 인정하자 “장로님들은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알게 하시려 하실 때 주님은 평강을 내려 주시거나 우리 마음이 타오르도록 하신다고 알려 주며 교리와 성약 성구를 읽어 주었어요.(교리와 성약 6:23; 9:8 참조) 그날이 바로 저의 전환점이 된 날이었죠.”

그때부터 영이 그와 함께하며, 갖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 그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었다.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또 다시 그 타오름을 느꼈죠. 창문을 여니 길모퉁이 근처에서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 가르치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마르셀리노는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22일에 그는 침례를 받았다. 석 달 앞서 선교사들이 선택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후에 그는 우수아이아 지방부 회장으로 9년간 봉사했으며, 지금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선교부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나의 말을 보낼지니라’(교리와 성약 112:4)라고 하신 것을 경전에서 읽을 수 있는데, 우수아이아가 바로 그곳입니다.” 토센 회장은 말한다. “우수아이아는 정말 땅끝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곳에서 복음을 찾는 이들에게 이 땅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는 지구 끝에 있는 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제가 주님의 등대와 신앙을 찾은 곳입니다.” ■

마지막 쪽을 보라

교 회 회원이 되었을 때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싶은 소망이 무척 컸다. 나는 공식 기록에 남아 있는 조상의 정보를 찾기 위해 지역 기록 보관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꼈지만, 과정이 늘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오래 전에 손으로 써 놓은 글씨는 판독하기 어려웠고, 어떤 책은 곰팡이가 피어 천식을 앓는 내 기관지를 자극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조사를 계속했다.

하루는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며 그분의 생년월일을 찾고 있었다. 나는 1,500쪽이나 되는 책을 발견했는데, 웬지 내게 유용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필요한 답이 거기에 없으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들자 그 두껍고 먼지가 뿌얇게 앉은 책을 뒤적이는 게 두려워졌다.

나는 낮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오길 바라며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누군가 “마지막 쪽!”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는 듯 보였다. 계속해서 몇 쪽을 더 읽었다. 그러자 똑같은 음성이 다시 들렸다. “마지막 쪽.” 조금 머뭇거리며 나는 마지막 쪽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 면에는 으레 “태어난 자녀의 개요 및 총 족수”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쪽 이전 장을 살펴보았으나 유용한 정보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읽고 있던 부분으로 돌아갔다.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가 끈덕지게 “마지막 쪽!”이라고 속삭이며 생각을 흐트렸다. 나는 마지막 쪽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는 눈에 익은 그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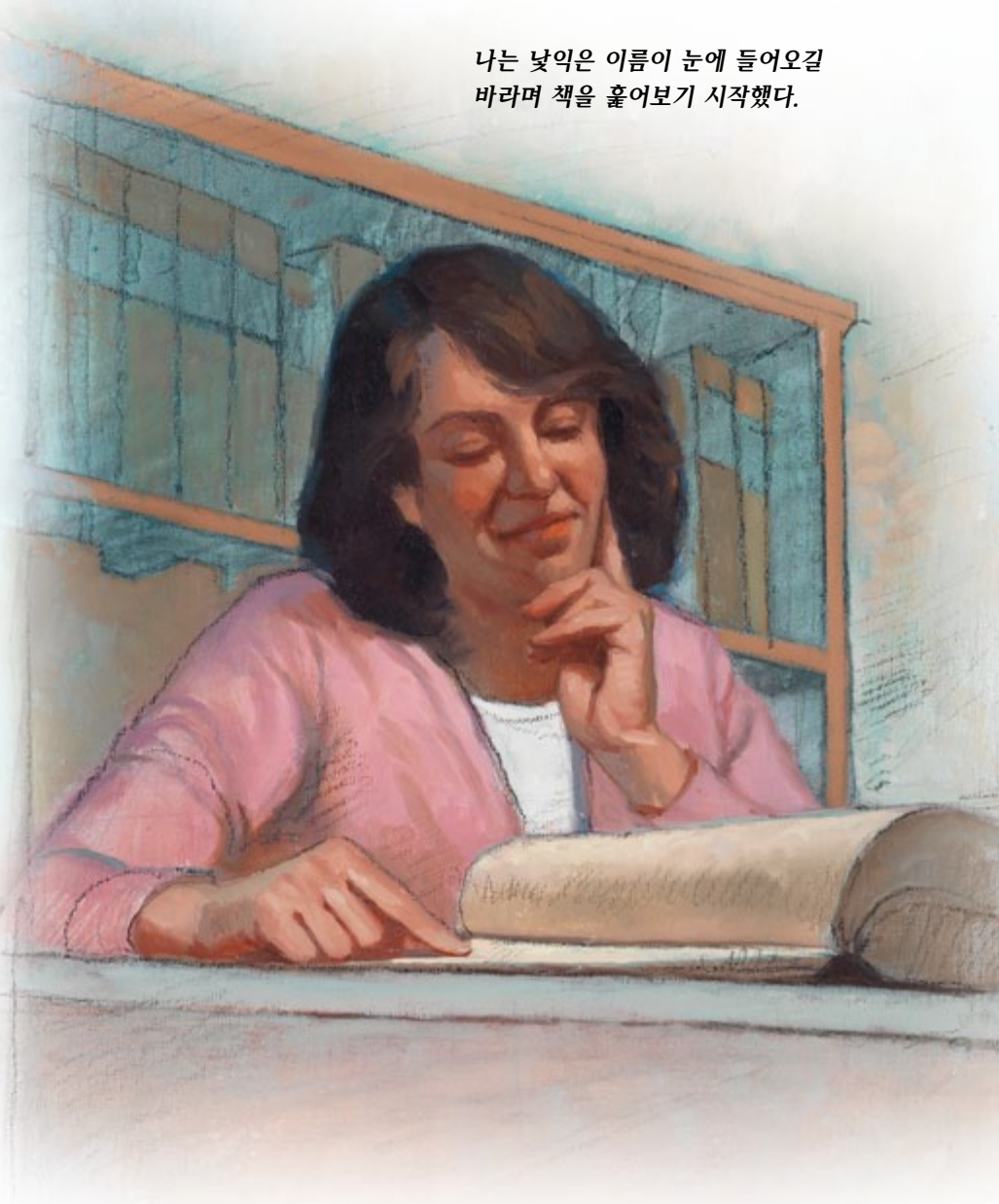
그러자 조금 전에 놓쳤던 뭔가가 보였다. 뒤표지 안에 한 장이 더 끼여져 있었다. 그 종이에서 손으로 갈겨쓴 글씨를 읽으면서 나는 12월 말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보았다. 거기서 나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으며 그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침례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놀라웠고,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인도받은 것에 관한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 찼다.

가족 역사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안다. ■

우크라이나에 사는 나탈리아 쉬체르바코바가 파브리나 우비코에게 전한 이야기

나는 낮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오길 바라며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결혼 계획에 온통 정신이 쏠린지라 점검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길게 적어 놓은 해야 할 일 목록을 들여다보았다. 일이 진척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주방 블라인드 청소를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로 했다.

결례와 술, 세정제를 가지고 부엌 조리대로 올라가 보니 꽤 더러운 작업이 될 것 같았다. 청소를 하다 보니 구주를 집에 영접했던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났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던 반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 여동생에게 일을 줌 거들라는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구주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누가복음 10:38~42 참조)

‘오늘 나는 그냥 마르다 역할을 해야겠군.’ 하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몇 주간 거의 마르다처럼 일했고 일상에서 해야 하는 작은 일들과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나는 다시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주방 블라인드를 깨끗이 청소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다. 그러자 2년 전 우리 집에서 열린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와서 나를 도와준 두 소녀가 생각났다. 우리는 함께



나는 몇 년간 통화하지 못한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의 결혼식에 관해 이야기했다.

블라인드를 비롯해서 주방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석구석 문지르고 닦았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소녀들의 어머니이자 몇 년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지내온 옛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의 결혼식에 관해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마침 그녀는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다. 우리는 한 시간가량 웃고 울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최근에 이혼하며 힘든 과정을 거쳤으며,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영은 고양되었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블라인드 청소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이나 순간에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놀랐다.

그날 밤 나는 “주방 블라인드 청소” 항목 옆에 완료 표시를 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 일을 끝낸 것에도 만족했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서 더 큰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했던 마르다였으나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셨다. ■

지넷 마해피, 미국 미주리

때 맞춰 필요했던 적절한 성구

미국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회사(敎誨士, 죄수를 교화하는 사람-옴긴이) 보조로 봉사하는 동안 나는 후기 성도 교회사를 요청하는 수감자들을 방문해서 경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당시에 그런 요청을 하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굳게 잠긴 문 몇 개를 지나 그녀가 수감된 곳으로 갔다. 면회 장소에는 찻집에 있는 것과 같은 탁자와 함께 양 옆에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교도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교도관에게 면회 신청서를 건넨 후 의자에 앉아 그 여성을 기다렸다.

그녀가 들어오자 나는 일어나 맞이한 후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그녀는 슬퍼 보였으며 옷 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고 금세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경전 구절을 나누어야 할지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고민을 귀담아들었는데 충동적으로 저지른 여러 행동과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녀가 봉착한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녀에게 도움이 될 알맞은 구절이 떠올랐다. 바로 모사이야서 3장 19절이었다.

나는 몰몬경에서 모사이야서 3장 19절을 펴서 내밀며 읽어 보게 했다. 그녀는 다소 언짢은 듯 빠르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는데, 경전을 읽으라고 해서 그런지 경전 읽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는 듯 보였다. 그녀가 첫 번째 구절인 “육에 속한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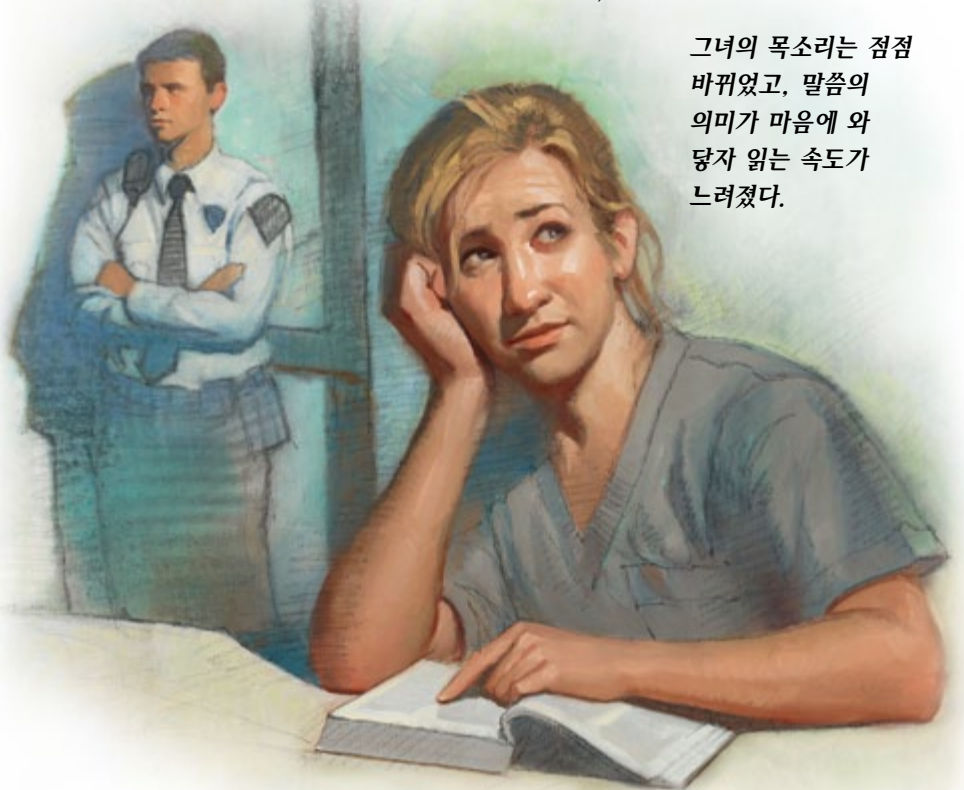
하나님의 적이라”까지 읽자, 나는 읽는 것을 멈추게 한 뒤 “육에 속한 사람”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계속 읽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바뀌었고,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자 읽는 속도가 느려졌다.

“성도”의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나열된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읽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그 구절에 열거된 각 성품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순, 온유, 겸손, 인내” 부분을 읽자 우리 주위에 영이 임한 것이 느껴졌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부분을 읽을 때에는, 나는 그녀 모습에서 변화를 목격했다. 얼굴이 밝아졌고, 태도, 어조,

전반적인 행동이 영의 영향을 받은 듯 보였다. 나는 그녀가 그런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경전에 묘사된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영으로 가르침을 받자, 희망이 느껴졌다.

기도를 한 후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나는 영적으로 한껏 고양된 채 교도소를 나왔다. 나는 경전에서 것처럼 즉각적이고 강하며 놀라운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경전을 읽을 때 자주 접했기 때문에 모사이야서 3장 19절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구절이 누군가에게 그같이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
앨런 현새커, 미국 애리조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바뀌었고,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자 읽는 속도가 느려졌다.



너는 아직 금식하지 않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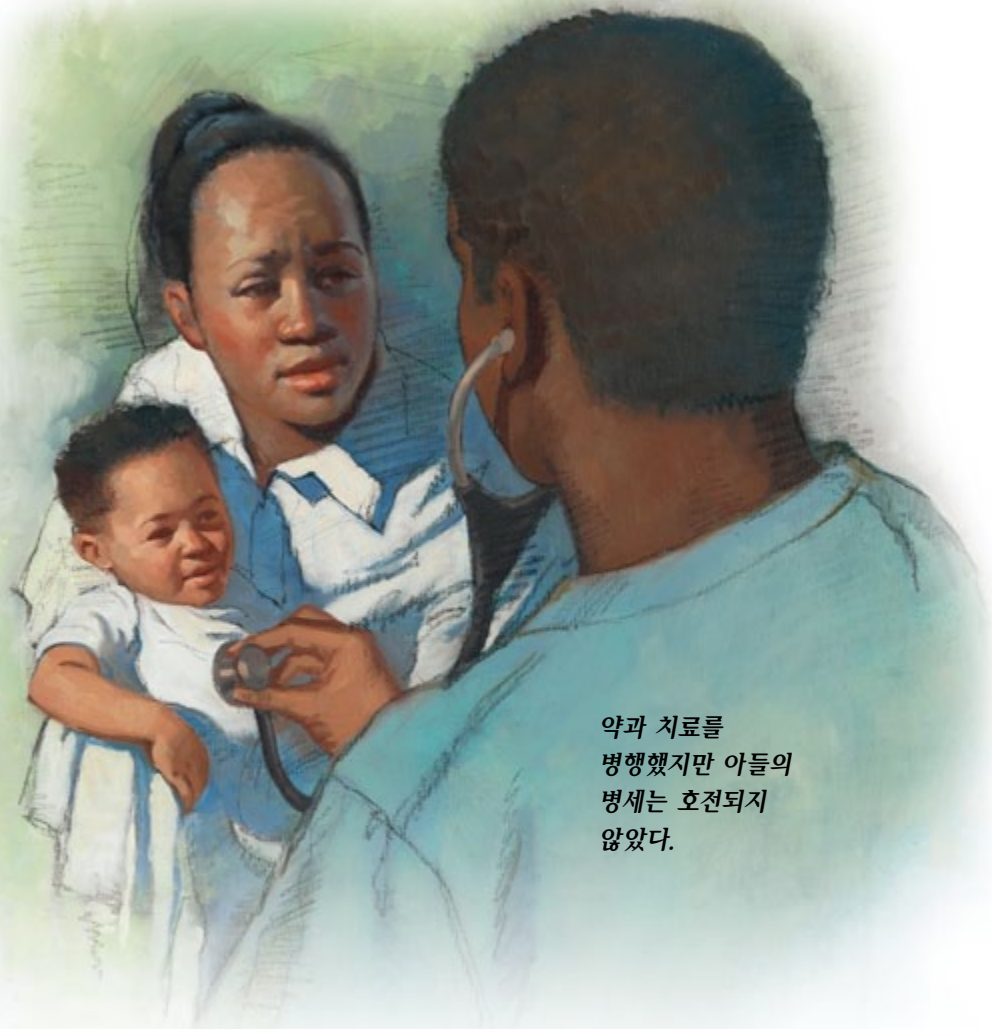
1998년, 나는 젊은 엄마로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6개월 된 아들이 숨쉴 때마다 색색거리고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 의사는 곧 세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병은 대개 바이러스로 감염되며, 폐 속 세기관지가 붓는 병이다. 의사는 약과 물리 치료를 처방했다.

물리 치료사한테 몸을 맡기는 일이 나와 아들에게는 하나의 고역이었다. 몸을 이리저리 뒤집자 아들은 불편해했고 나는 그 치료가 고통을 줄까 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치료사가 치료의 이점을 설명해 주자 용기가 났다.

약과 치료를 병행했지만 아들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색색거리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의사는 이미 열 번이나 치료를 받았는데도 물리 치료를 다섯 번 더 받으라고 처방했다.

열세 번째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의사 사무실에 붙여진 “사망을 불러오는 세기관지염”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읽다 보니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치료가 끝난 후 물리 치료사는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서 어떻게 집에까지 무사히 왔는지 몰랐다.

남편에게 전화한 후에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내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약과 치료를 병행했지만 아들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기도를 마치고서 나는 기도와 아들이 받은 신권 축복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책장에 리아호나(당시에는 *L'Etoile*) 한 권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도움을 구하며 무작정 책을 봤는데 “나는 아기를 위해 금식했어요.”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그런 후 나는 “너는 아직 네 아이를 위해 금식하지 않았노라.”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나는 아들을 위해 즉시 금식을 시작했다. 다음날 물리 치료를 받을 때도 여전히 금식 중이었다. 그때 아들을 살펴본 물리 치료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인, 아드님이 괜찮아졌군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는데요.”라고 그는 말했다.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렸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 후, 주님이 개입하셨음을 의심 없이 믿으며 평화롭게 금식을 마쳤다.

아들은 신앙과 기도, 신권 축복, 그리고 금식 덕분에 병이 나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그분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계속 도우실 것임을 확신한다. ■

케티 콘스탄트, 과들루프



제럴드 코세 감독
칠십인 정원회

혼란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다

저는 프랑스 남서부에서 “홀륭하신 부모에게서”(니파이전서 1:1)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반면, 학교에서는 모든 종교적 믿음에 대해 의구심이나 심지어는 적대감마저 표출하는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깔보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코리호어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라, 그러한 것은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이니라. 그것이 확실함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앨마서 30:14~15)

열일곱 살 때, 저는 고등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은 여기에는 분명 아무도 없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심문하는 듯한 표정으로 교실을 둘러보며 그렇게

간증을 굳건하게 하고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끊임없이 신앙을 키우고 강화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감히 실토하는 학생이 있다면 즉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태세였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망은 더 강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40명이나 되는 학생 중 손 든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하신 선생님은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교회 회원은 사는 동안 모두 자신이 지닌 간증의 진실성과 힘을 시험 받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신앙의 시험에 용감히 맞선다면, 혼란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이 세상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은 우리 주변에 산재한 메시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도래하여 무차별적이고 모순된 의견과 정보가 일상으로 파고드는데, 이런 것들은 혼란과 마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교리와 성약 123:12)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증을 계속 굳건히 지키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제가 인생 여정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바른 길을 가게 해 준 몇 가지 단순한 원리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어둠의 안개”(니파이전서 12:17)와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구하십시오

“너희가 알 수 없나니”(앨마서 30:1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날마다 영적인 지식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실천은 공부, 명상, 매일 하는 기도에 바탕을 둥니다. 이런 실천은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든가, 그렇지 않으면 …… 하나님께 구하기로”(조셉 스미스—역사 1:13)한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르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며, 우리는 넉넉히 가졌노라 할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날마다 영적인 지식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실천은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르게 해 줍니다.

그들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임이니라.”(니파이후서 28:30)

답이 없는 질문도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를 찾다 보면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모든 길을 찾아냄은 불가능”(야곱서 4:8)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파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한다]”(니파이전서 11:17)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과 승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교리와 성약 88:64) 우리는 이런 응답을 우리의 필요와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니파이후서 28:30) 점차적으로 얻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참으로 필수적인 질문과,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거나 증거가 필요해서, 혹은 개인적인 만족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 질문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의 간증을 구하십시오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의구심은 이성적인 설명만으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적 혹은 고고학적 발견이 경전에 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지식은 논리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증거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문제는 영의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린도전서 2:11)

우리는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야곱서 4:13)을 확신합니다. 영은 생리적인 감각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밝히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7)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다른 교회의 고위 성직자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에 그들은 두 종교의 교리 전문가들 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가 갖는 힘과 진리는 전문가 토론이 아니라 그분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성스러운 간증에 달려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¹

배도의 오랜 기간 동안 세상에는 전문가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이성이 성스러운 계시의 힘을 대체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기록은 속임이 없는 등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기록을 상고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계시와 예언의 영이 있어, 이 모든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곱서 4:6)

신앙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이터서 12:6) 신앙은 영원한 진리의 지식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추구할 때 그 지식은 확실하고 완벽한 것이 됩니다. 야렛의 형제가 지녔던 지식에 대해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휘장 안을 바라볼 수 없도록 금할 수 없었나니 …… 이에 저가 더 이상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알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함이었더라”(이터서 3:19)

간증을 굳건하게 하고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끊임없이 신앙을 키우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야곱은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 놓[은]”니파이후서 9:28) 니파이 백성의 교만을 경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야고보서 2:22)라고 가르쳤습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존중하면, 예지를 밝혀 주고 영을 꽃피게 하는 성신의 동반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원리들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저는 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할 때 혼란스럽고 길 잃은 세상에서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압니다. 이 원리들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의 부지런함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머지 않아, 보라 너희가 지극히 귀[한] ……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 너희가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리니, 너희가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앨마서 32:42)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저는 외설물에 중독되었어요. 외설물은 제 삶을 망치고 있어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

설물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설물은 여러분의 영에 해를 입히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외설물은 여러분이 맺는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설물을 보면, 성신이 떠나갑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외설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즉시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상의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회개하여 구주의 속죄로 여러분의 생각과 영이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향후에 외설물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휴대전화를 없애고(공용 컴퓨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강도 높은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경전 공부, 봉사, 그밖에 마음을 고양하는 활동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탐욕적인 욕망[을] …… 그치라”,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교리와 성약 88:121; 121:45) 진정한 회개, 구주,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종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중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으세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세요. 이노스는 하루 종일 기도하며 주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고, 그 신앙에 따라 큰 평안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 경전을 읽으세요. 성령과 함께한다면 부도덕한 일을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 시편 24편 3~5절을 읽어 보세요. 바쁘게 생활하세요. 운동을 하거나 밖에 나가 건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 보세요. 미덥지 못한 친구에게 영향을 받지 마세요. 유혹을 느낄 때 단호하게 뿌리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애나 지, 17세, 베네수엘라 솔리아

절대 놓아 버리지 마세요

외설물은 제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회개하는 과정은 길고도 힘들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매일 진심으로 주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신이 회개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속죄는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혹을 받을 때면, 그것이 형제님이 죄를 짓도록 사탄이 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유혹에 굴복할지 뿌리칠지는 언제나 형제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님을 절대 놓아 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형제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니파이전서 3:7 참조)

호주 빅토리아에 사는 한 청년

감독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감독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첫 단계를 밟기가 어렵겠지만 회개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독님은 형제님을 조롱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독님은 형제님을 염려하시며 형제님에게 최선인 것만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으므로 형제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느껴 온, 가늘 길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앨마서 5:9 참조) 변화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형제님은 다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용기를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테일러 피, 18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찬송가를 부르세요



외설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과정이 길고도 고통스럽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형제님은 변화하고 싶은 소망을 가져야 하며, 죄의 무게를

인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싶다고 소망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저는 컴퓨터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두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를 바라보십니다! 외설적인 영상이나 음악이 떠오르려 할 때 저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러면 곧 그 악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나탈리아 큐, 18세, 브라질 상파울루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대적에 맞서고 승리자가 되는 힘을 얻습니다.(교리와 성약 10:5 참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면, 그분은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경전을 매일 읽을 때 형제님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형제님을 결박하고 있는 사슬에서 형제님이 풀려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 형제님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안 지, 18세, 우루과이 리베라

고백하십시오

저도 이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 일은 아직도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무엇보다 외설물을 그만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십시오. 저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독님께 말씀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외설물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감독님을 찾아가라.'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성전 추천서 집건을 하는데 그냥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고백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으며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저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슬퍼하셨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외설물 문제를 고백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테네시에 사는 한 청년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외설물에 중독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외설물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부모님의 지지와 감독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몇 주간 성찬을 취하지 않는 것은 깨끗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작은 희생일 뿐입니다. 전문 상담사도 형제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은 형제님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청년



유혹에 맞서는 방법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물질, 상황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중독이라는 사실로 묶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힘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감독님께 이야기하고 권고를 따르십시오.

컴퓨터에 외설 사이트 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잠금 장치를 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인생에서 실질적인 통제 장치는 자제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수롭지 않은 순간에도 더욱더 자제력을 발휘하십시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음란한 내용이 나온다면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또는 아파트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내는 곳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예술, 음악, 또는 문학 작품을 사랑하는지 말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5~46쪽.

다음 질문

“거룩하지 않은 수많은 것으로 둘러싸인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9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org, liahona@ldschurch.org,

Liahona, Questions & Answers 9/12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 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 선교사들은 종종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 왔습니다. (1) 저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 용서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 가르칠 때, 간증할 때, 혹은 언제라도 영을 느낀다면 바로 그때가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는 때, 다시 말해 깨끗해지는 과정이 시작된 때입니다. 영은 기록하지 않은 성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앨마서 7:21 참조) 대개, 깨끗해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이 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전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확신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물론 깨끗이 하고 용서하는 속죄의 힘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낙인 찍힌 회개자로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8년에 저지른 죄’를 나타내는 검은색 표시가 오른쪽 발목에 찍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왼쪽 귀 뒤쪽에 갈색으로 ‘2010년 범법’이라고 표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속죄에 담긴 포괄적이고 정확하는 힘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18)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의 기적입니다.

저는 죄책감이 사라지기 전에 죄가 씻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죄책감에 관한 기억은 경고이자 일종의 영적인 ‘정지 신호’로서 유사한 유혹이 닥쳐올 때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을 갈 때 찾아올 고통이 어떤지 알잖아.” 하고 외칠 것입니다. 회개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식이 사라지기는 할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시간이 오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요한계시록 21:4; 사체 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로 더는 근심하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허물[이] 씻기워[진]”(이노스서 1:6) 이노스, 주님이 “마음에서 죄업을 제하여 주[시는]”(앨마서 24:10) 경험을 한 레이맨인 개종자들,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앨마서 36:19; 강조 추가)라고 말한 앨마도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 분명히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죄 때문에 더는 근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속죄의 무한한 힘은 기적처럼 모든 상처를 치유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으로 모든



우리의 죄의식이 사라지기는
할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것이나 곱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시간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권능을 믿는 신앙을 더 많이
행사할수록, 용서받고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은
커질 것입니다.



양심을 위로했습니다.

모든 죄의식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노스가 어떻게 자신의 죄가 “씻기워졌[는지]”(이노스서 1:6~7 참조) 여쭙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이노스서 1:8) 따라서 우리가 속죄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권능을 믿는 신앙을 더 많이 행사할수록 용서받고,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모사이야서 5:2)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는 “속된 상태”(모사이야서 4:2)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으신 아들딸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과는 다른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스크루지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기에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깨끗이 하는 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엘마와 같이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엘마서 36:19)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안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려 애쓰는 모든 이에게 건설적인 충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빌립보서 3:13)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를 뒤로 한 채 전진하며 하나님의 구속 권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신앙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로마서 14:22)

그동안, 죄의식의 마지막 찌꺼기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의 영을 느낀다면,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또는 깨끗해지는 과정이 우리 삶에서 신성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확신 속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분명합니다. 회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죄가 씻기고 죄의식은 마침내 사라질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죄의식에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주

1. Charles Dickens, *A Christmas Carol in Prose*(1843), 150.

우리들 공간

왜 시련이 필요하죠?

계명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 때에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시험받기 위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족 안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카헬린 브이,
베네수엘라(아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살 때에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민 와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정말 영감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청남은 이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목표를 성취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청남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영적, 현세적, 신체적인 것과 그 외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노력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커졌으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게 더 잘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태어날 제 자녀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흡족합니다.

호나탄 에이, 중국



내가 좋아하는 성구

니파이전서 3:7

이 구절 덕에 제 신앙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니파이는 시련을 겪는 와중에도 여전히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니파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카일라 티, 필리핀(위)

나만의 간증을 찾아서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났기에 순수한 의도로 경전을 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간증이 크기 않았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단순히 읽는 대신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찾으려 했습니다. 제3니파이 11장 3절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고 전율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전을 꾸준히 읽었고 진심으로 기도했으며 제 간증도 커졌습니다.

라이언 알, 미국 워싱턴

개인 발전 프로그램

2011년 2월 27일, 저는 청녀 표창을 받았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끝냈고, 저 자신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지켰으며, 자랑스럽게 메달을 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청녀 조직이 우리가 발전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청녀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메달을 받음으로써 저는 제 목표를 중 하나를 성취했고 주님의 사업에서 더 많은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카테리네 엠, 베네수엘라



희생, 그러나 기쁨



돈 버는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이 사라졌다.

에드워드 엠 아코사

내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사를 만나 교회에 들어오셨다. 아버지가 다섯 자녀를 남기고 떠나셨지만, 우리 가족은 교회 가르침 덕에 굳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으며 집안이 화평했다. 나는 어머니와 교회 가는 것이 좋았으며 어려서는 초등학교 반에, 커서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좋았다.

청남 때는 와드 선교사로 부름 받았고 즐겁게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도 했다. 또한 우리 와드의 몇몇 청남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귀환 후에 그들은 달라져 있었다.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해져 있었다. 형 또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귀환한 후 형의 태도가 많이 향상된

게 보였다. 나는 계속 이렇게 자문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변화하고 그토록 발전하게 한 선교 사업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렇게 나는 선교 사업이 정말 하고 싶어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선교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저축하기 위해 일했다. 하지만 돈 버는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희생이 될 것이었다. 내가 버는 돈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 때문이다. 매번 선교사 지원서를 쓰다가도 내가 포기해야 하는 돈이 생각나 그냥 덮어 버리고 일을 계속했다.

친구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자 나 또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 때문에 나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선지자와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은 단지 오른손을 들어 올려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건 바로 그분들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야.'

지금이 바로 선교 사업을 할 시기였다. 그래서 나는 감독님께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내 삶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날이었다. 가장 행복했던 날은 감독님이 나를 감독실로 불러 나이지리아 이바단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이 담긴 하얀색 봉투를 주시던 때이다.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나는 복음 교리에 더욱 정통하게 되었고 놀라운 것들을 배웠다. 또한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나오기로 한 결정에 무척 감사하며, 이를 후회한 적이 없다. 나 역시도 선교 사업을 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행복을 안겨 준 복음의 축복을 똑같이 누리도록 돕기 때문일 것이다. ■

성전에 있는 내 모습을 그려 보며

잘생긴 직장 동료가 데이트 신청을 했으나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성전 결혼이라는 목표가 있었다.

아드리안 프랑카 리아오

어렸을 때 나는 영원한 가족에 속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내가 열두 살 때 우리 가족은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성전 제단에 가족과 무릎 꿇고 형제자매들과 부모님께 세세 영원토록 인봉되던 그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한다. 그때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가족의 형태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침대 옆에 상파울루 성전 사진을 놓아두고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면서 영원한 가족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했다.

몇 년이 흘러 나는 대기업 광고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은 한 신입사원을 내게 소개해 주셨다. 그는 매력적인 파란 눈동자에, 잘 웃고, 옷도 멋지게 잘 입는 흰철한 청년이었다.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은 내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세상 꼭대기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 나는 그가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밴드에서 드럼을 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들떴다. 담배와 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교회 회원이 아닌 그에게는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했다.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멋진 사람 생각만 가득했다. 하지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성전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이상한 기분이 몰려왔다. 그 느낌을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또 데이트를 했는데 술과 담배를 하는 그를 보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술이 놓인 탁자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처음에는 즐거웠으나 그가 입을 맞추려 하자 좌절감이 밀려왔다. 그의 숨결에서 담배와 술 냄새가 풍겨왔고, 나는 입맞춤을

거부했다!

나는 그날 밤 성전 사진을 바라보며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는 영원한 결혼을 위해 나를 성전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함께 영원한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는 합당한 청년과 결혼하려는 내 목표를 행복한 마음으로 떠올렸을 때에야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드럼 연주자는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멋진 외모는 더는 내 마음을 끌지 못했다. 나는 내가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 알았다.

1년 후, 나는 상파울루 성전에서 내가 사랑하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와 결혼했다.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청년을 기다린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

성전 사진을 구매하려면, store.lds.org에서 "Music, Media, and Art[음악, 미디어, 미술]"을 클릭한 후 "Temple Pictures[성전 사진]"을 클릭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한 닻



데이비드 엘 벅
본부 청남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제일회장단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소책자의 새로운 판이 나오에 따라 교회 잡지는 본부 청녀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와 본부 청남 회장인 데이비드 엘 벅 형제와 함께 개정된 소책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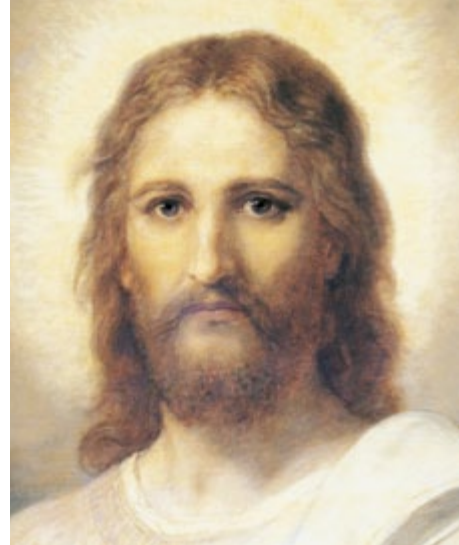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새로운 판은 왜 나오게 되었나요?

벅 형제: 주님의 표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러한 표준을 겨냥한 대적의 공격 강도와 빈도는 높아졌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청소년이

그러한 공격을 이겨 내도록 돕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돌튼 자매: 선지자들은 청소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으며, 그분들이 최근에 하신 말씀을 청소년이 항상 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닻을 내려야 하기에 최근에 전해진 가르침을 이 소책자에 실었습니다.

벅 형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일깨워 주셨듯이 지금 청소년들은 주님의 표준과 세상의 표준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² 유희이 점점 거세지고 사회는 사악한 행동을 점점 더 용인합니다. 이 새로운 소책자에 실린 영감에 찬 권고는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분은 청소년 모두가 복음대로 살 때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돕기 위해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청소년이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실린 표준은 청소년이 그분의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습니까?

돌튼 자매: “일과 자립”이



유의해야 합니다.

백 형제: 영을 따르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자기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돌튼 자매: 저는 이 소책자에 나오는 축복을 찾아보고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그들이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해 줄지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세대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지상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면전에서 자신 있게 서고자 하는 소망을 기억하라고 청소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백 형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책자와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에도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나오는 “합당한 생활” 부분에서 청남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공부하고 그 표준대로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남은 자신의 간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도 강화하게 됩니다.

돌튼 자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으며 영을 언급한 부분을 모두 동그라미 치는 재미있는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준대로 살 때 청소년들은 항상 성신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청소년들은 성신과 함께해야 합니다.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검색, 비디오 게임 등 새로운 기술에 많은 시간을 쓰느라 정작 일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선교 사업을 나가는 젊은이 중 고된 육체적, 영적 수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 및 정서적 건강”도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하지만 정서적 건강에도



백 형제: 저는 또한 이 소책자가 복음을 나누는 훌륭한 자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친구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소책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책자를 이용해 가정의 밤 공과나 성찬식 말씀, 혹은 교회 공과를 준비할 수 있으며, 주님의 표준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에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할 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실린 교리와 원리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것이며 그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한 표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돌튼 자매: 저는 “맞아요. 어렵죠.”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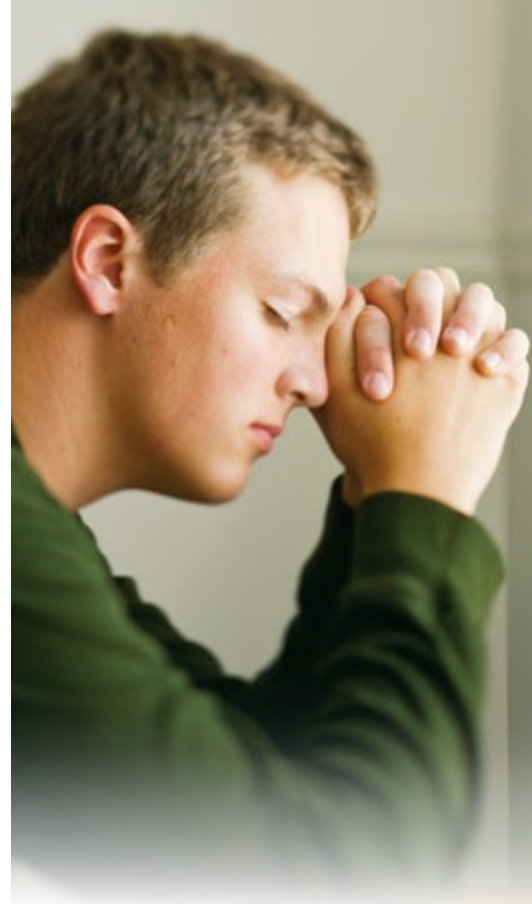
표준을 지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도 일깨워줄 거예요. 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일을 겪도록 이끕니다. 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열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런 행복을 얻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백 형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성신의 위로부터는 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고 흠족해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만족감, 성전 성약의 힘에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표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돌튼 자매: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쁜 일을 저질러서 더는 교회에 갈 수 없어.” 그리고서 더 나쁜 행동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이며,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표준대로 살도록 가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백 형제: 저는 주님이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를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주님의 표준대로 살려서 여러분의 결심과 다른 삶을 살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옹당 살아야 하는 방식대로 사십시오. 가족 중에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의 모범에서 남모르게 힘을 받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튼 자매: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주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 살도록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을 전세에서 증명했습니다. 백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준대로 살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표준대로 살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주의 빛을 담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표준대로 살 때 어떤 축복을 받으니까?

백 형제: 주님은 그분께서 정하신 표준에 충실한 사람에게 많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신의 동반, 양심의 평화, 커져 가는 신앙과 자신감처럼 어떤 축복은 즉각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능력은 커집니다.

돌튼 자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해 봐. 아직 어리니까 시도해 볼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따를 때, 마치 입구는 넓지만 바다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와 같은 결말이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지는 그러한 결정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시도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은 혼외 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깔때기를 뒤집어 엄격한 길을 걷고 주님의 표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 온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열리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발목이 묶이는 대신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백 형제: 세상에는 이러한 축복의 가치와 이 축복에 합당해지는 방법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또래 중 상당수가 세상의 방법을 대신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기반이 될 참된 원리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범과 간증입니다.

그밖에 청소년들에게 당부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돌튼 자매: 저는 청소년들에게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를 통해 표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정결한 청년과 청년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백 형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선함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충실함을 지켜볼 때 정말 즐겁고 영감을 받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세상에는 주님의 표준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신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신과 함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며, 필요한 때에 성신이 위로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ii.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0쪽 참조.

우리의 표준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돌튼 자매님이 말씀하신 깔때기 비유를 들면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것을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깔때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표준과 계명을 따를 때 지금, 그리고 미래에 많은 기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표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 성신이 우리의 동반자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렇습니다.
- 중독이나 죄에 따른 결과를 참고 견디는 대신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전 축복과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어려니의 모범

에린 바커

나는 식기 세척기에 접시를 던져 놓고서는 좌절감에 울음을 터뜨렸다.

“에린, 수영장 파티에 가려무나. 좀 쉬렴.”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나는 부엌을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내가 화가 난 것은 에이드리언의 수영장 파티 때문이 아니었다. 엄마와 막내 여동생인 애비가 폐렴을 앓고 있었다. 아빠와 나는 지난 주 내내 두 사람을 돌보고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노력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빨래하며, 나머지 두 여동생을 차로 태워 줬다는 말이다.

이 모든 일은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염려와 두려움을 잠재웠다. 나는 가족을 걱정했고, 곧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날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쁘게

생활했고 두려움을 외면하려고 노력했었다.

심지어 에이드리언의 파티를 건너뛸 생각이었는데, 피곤한 나에게, 아무 걱정 없이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아빠의 말에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끓어오르는 좌절감을 아빠에게 분출했다.

나는 침실에서 한동안 울었다. 죄책감이 들어 위층으로 올라가 엄마와 애비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살펴보았다. 엄마가 열로 상기된 여동생에게 약을 먹이고 계셨다. 엄마는 거의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고 여러 날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다. 아빠와 나는 엄마에게 어서 빨리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애비를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셨다.

“난 괜찮아요. 두 사람이나 눈 좀 붙여요. 애비에겐 내가 필요해요.”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는 엄마가 열 살 난 동생을 토닥이시는 모습을 보고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엄마는 동생의 체온을 재고 침대에 눕도록 도와주신 후 같이 침대에 누워서 떠는 동생을 안아 주셨다. 애비는 신음을 멈추고 엄마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느꼈다.

엄마는 어느 때보다도 병세가 심각하셨다. 폐렴으로 결국 여러 날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련을 겪는 와중에도 엄마는 자신을 잊으셨다. 자신의 병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딸의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으셨다.

나는 원래 그날 밤 순교자 역할을 자처하며 집에 남아 돕기로 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화를 냈기에, 그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엄마의 행동을 보고 겸손해졌다. 엄마를 지켜보면서 엄마가 동생들과 나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날 밤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 엄마의 모범을 따르고 싶었다. 나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필요할 때 그들 곁에 있을 것임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



십이사도 정원희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성에게 힘과 덕성,
사랑이라는 신성한 속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족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여성들은 강하고
충실합니다.

교회에서 성취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여성들이 펼치는 비이기적인
봉사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은 놀랍습니다! ■

“후기 성도 여성들은 놀랍습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8~21쪽에서 발췌.

신화: 맨 비



기도, 감사 쪽지, 자연재해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이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9,6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살지만, 뭔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일본 호노카 오와 미국 미주리에 사는 매기 더블유의 실화를 살펴봅시다. 슬프고 무서운 시간 동안 그들이 충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호노카

제 이름은 호노카이며 일본 치바 현에 삽니다. 저는 놀기, 줄넘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저는 삽화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매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리 주 조플린에 사는 매기라고 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TV 뉴스에서 폭풍 주의보를 보셨고 우리 모두는 지하실로 대피했죠. 크고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가 무서웠어요. 저는 친구와 가족들이 걱정되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가족이 무사하고 집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호노카

저는 경전 이야기 중 리하이의 꿈 (니파이전서 8장 참조)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고 초등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성찬을 취할 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또 그것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는 성찬식이 정말 좋아요.

큰 지진이 났을 때 저는 학교에 있었어요. 맨 먼저 '무서워!',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가족이 무사하고 사람들이

무사하도록 기도했어요. 나중에 제 친구 중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해 주셨음을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알아요.



매기



마을을 휩쓸고 간 토네이도 때문에 많은 집과 가게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때문에 슬펐습니다. 부모님과 오빠와 언니는 마을의 복구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경전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러]"(모사이아서 2:17)

저도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제가 어려서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성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좋은 생각을 떠올려 주었죠. 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감사 쪽지 20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 각 카드를 특별하게 꾸며서 사람들이 영을 느끼도록,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도록 해 주었죠.

저는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 특정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과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예의와
주님의 영으로
가득차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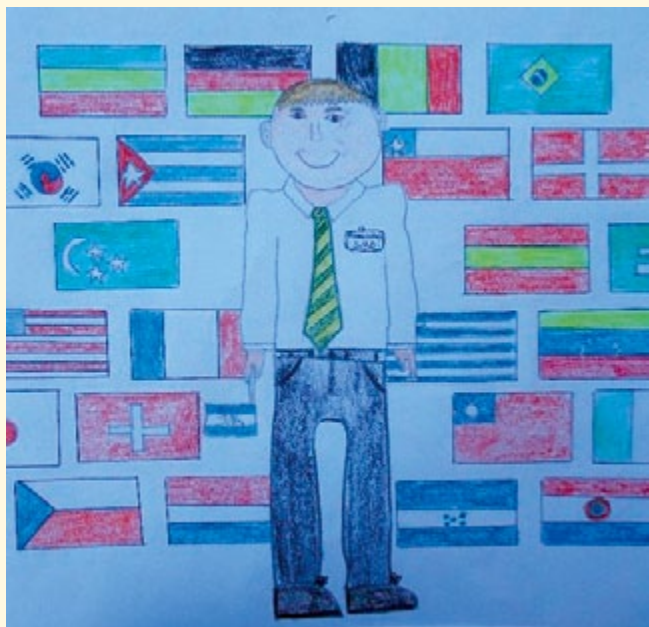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012년 4월 연차 대회



우리들 이야기



인도네시아에 사는 다섯 살 난 제이 알은 가족을 매우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제이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이는 친구가 많고 친구들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제이는 동식물 같은 주님의 창조물을 사랑합니다. 곤충도 정말 좋아하고, 자기 몸에 있는 줄로 집을 만드는 거미를 좋아합니다. 제이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루카스 엘, 9세, 아르헨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요



하 나님을 믿는 신앙 책자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더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모든 어린이가 이 책자를 끝까지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재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표를 세웠고, 오빠와 같이 교회에서 이중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저에게는 지금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저와 가족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된답니다!

샬롯 디 비, 10세, 프랑스



브라질에 사는 네 살 난 르베카 비는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르베카는 매주 가정의 밤에 “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은 영원해”를 항상 부르고 싶어 하며, 가사를 모두 외웁니다. 세 살이 조금 넘었을 때 벌써 신앙개조 제1조와 2조, 3조를 익혔습니다. 르베카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며 가족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티모시 케이, 3세, 우크라이나

liahona.lds.org ‘우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을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원고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3세에서 12세 사이여야 함),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저는 영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 제 삶을 채우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성

경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 신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세 친구를 풀무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세 이스라엘 청년은 왕에게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충실한 이 청년들을 풀무 불에서 건져 내어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다니엘 3장 참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실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서로 돕는 선한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 주시리라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말을 들어 주고, 방법을 보여 주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간증하여 성신의 동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참된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친구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세요! ■

노래와 경전

-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 신앙개조 제13조

바로 여러분

다음은 좋은 친구가 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주말에 일지를 펴고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 보세요.
-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 여러분과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적어 보세요.
-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나 초등학교 지도자에게 말씀드리세요.

운동장에서 다친 여자아이를 도왔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전학 온 학생에게 버스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정의반 활동: 우정

이 놀이를 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워 보세요. 공이나 단추 하나와 각각 1, 2, 3이 적힌 쪽지 세 장이 필요합니다. 이 종이를 작은 봉지나 봉투에 넣습니다.

우선, 한 사람이 종이를 선택하고, 자기의 공 또는 단추를 종이에 적힌 그 숫자만큼 움직입니다. 판 위에 적힌 지시 사항을 읽고 그대로 따르세요. 모두 좋은 친구가 되어 끝까지 도달해야 놀이가 끝납니다!

한 소녀가 식판을 떨어트렸는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칸 뒤로 이동하세요.

점심을 가져오지 않은 남자아이와 점심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쉬는 시간에 하는 놀이에 다른 친구들을 끼워 주었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초등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었는데 모른 체했습니다. 한 칸 뒤로 이동하세요.

가족과 함께 새로 이사온 이웃을 방문했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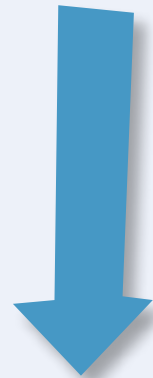


남동생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끝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남자아이를 비웃었습니다. 한 칸 뒤로 이동하세요.

친구에게 복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옳은 선택을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세요.

친구를 놀려서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한 칸 뒤로 이동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이디 에스 스윈튼

토마스 스펜서 몬슨은 토마스 콘디라는 할아버지 성함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어린 토마스는 몇 집 건너에 사셨던 할아버지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덟 살 때, 하루는 할아버지와 함께 현관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는 영국에서 온 로버트 디스라는 노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밥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밥 할아버지는 홀로 사시고, 가난했습니다.

밥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토마스와 할아버지와 함께 현관 그네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살던 작은 벽돌집이 헐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할아버지는 가족도, 돈도, 갈 곳도 없으셨습니다.

토마스는 이

슬픈 이야기에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가족 동전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열쇠를 하나 꺼내서는 밥 할아버지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딕스 씨, 옆 집이 제 집인데 마침 비었어요. 그리로 이사오시구려. 돈은 한 푼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원하는 만큼 지내셔도 됩니다.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밥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토마스는 어머니에게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이 저녁을 먹기 전에 어머니는 쇠고기 구이, 감자, 그레이비 소스를 밥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때때로 케이크 시트의 분홍색, 녹색, 하얀 색 층에다 초콜릿을 끼얹은 어머니의 유명한 리본 케이크도 만드셨습니다. 밥 할아버지께 저녁을 갖다 드리는 일은 토마스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 토마스는 왜 먼저 자기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몬슨 회장님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느냐가 사랑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빛, 1997년 11월호, 6쪽)

밥 할아버지께 갖다 드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토마스는 접시에 수북이 담긴 음식이 쏟아지지 않게 잘 들고서 밥 할아버지 댁으로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오시는 밥 할아버지를 초조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들은 접시를 맞바꿉니다. 할아버지는 그 전 일요일에 받은, 깨끗이 씻은 접시를, 토마스는 음식이 가득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밥 할아버지는 친절히 심부름을 하는 토마스에게 10센트를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마스는 늘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엄마가 호되게 때리실 거예요.”

노신사는 토마스의 금발머리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가서 고맙다고 전해 주렴.” 토마스가 밥 할아버지의 칭찬을 전해 드리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애를 보이고, 아낌없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는 것은 몬슨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몬슨 회장님 삶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

여러분은 몬슨 회장님과 얼마만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지자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래는 어린 시절 몬슨 회장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점이 있으면 옆에 있는 상자에 표시해 보세요.

-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 몬슨 회장님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 도서관 회원증이 있었습니다.
- 일요일에 태어나셨습니다.
- 사촌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 장남이었습니다.
-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 별명이 있었습니다.(아래 참조)
- 철로 옆에 살았습니다.
- 형제자매가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 어머니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 종종 아빠께서 아침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 8살 때 침례 받았습니다.
- 어렸을 때 복음에 대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 낚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름과 별명

몬슨 회장님의 이름과 별명을 그렇게 불렀던 상황과 이어 보세요.

상황	이름이나 별명
1. 어릴 때 교회나 학교에서 불리던 이름	a. 아빠
2. 현재 교회 회원들이 부르는 이름	b. 급한 월리
3. 손자 손녀가 부를 때	c. 톰 혹은 토미
4. 자녀들이 부를 때	d. 토마스 스펜서 몬슨
5. 몬슨 회장님이 쉬기보다는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붙여 준 별명	e. 몬슨 회장
6. 침례 받을 때 썼던 이름	f. 할아버지

여러분의 특별한 점을 나타내는 별명이 있습니까?

루테의 집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매 일 밤, 루테의 가족은 받침목 위에 세워진 타원형 오두막집인 사모아식 전통 가옥 페일에 모입니다. 이곳은 가로 세로가 각각 4.6미터, 3미터이며 벽은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사생활을 위해 천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열 살인 루테와 가족들은 바닥에 동그랗게 앉아서 함께 경전을 읽습니다. 이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고 가족의 일을 의논합니다.

매일 밤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가족들은 *sā*, 즉 “성스러움”이라고 부릅니다. 사모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의 가정이 성전처럼 성스러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가정을 성신이 임하고, 평화와 가르침이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를 깔고 모기장을 친 후,
루테는 개인 기도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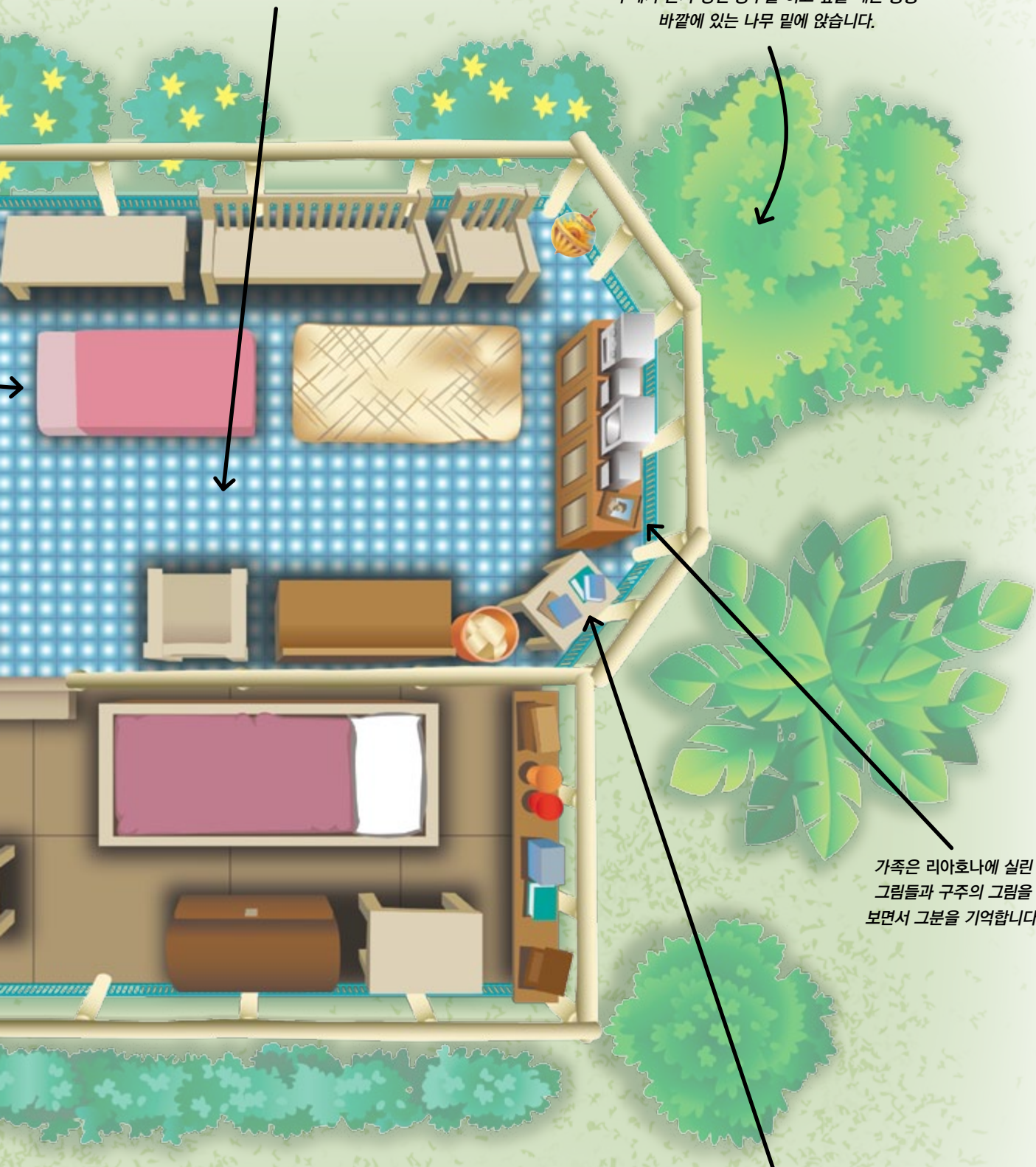
종종 가족은 루테의 조부모님 페일에
모여 가정의 밤을 합니다.

삽화: 스티븐 켈러; 사진: 애덤 시 올슨



가족은 거의 매일 밤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족 토론을 하기 위해 폐일에 모입니다.

루테가 혼자 경전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종종 바깥에 있는 나무 밑에 앉습니다.



가족은 리아호나에 실린 그림들과 구주의 그림을 보면서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 가족은 리아호나, 경전, 공과 책을 탁자 위에 둡니다.

식사 시간은 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족은 야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우무 쿠카라는 땅 화덕에 뜨겁게 돌을 달구어 요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봉사해요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5.

에린이 울자 케빈은 곰 인형을 주었습니다.



6.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오늘 너 그분을 위해 봉사했으니까.



하지만 전 성전에 가지 않았는데요.

7.

맞아. 그래도 형과 누나가 준비하는 것을 도왔잖니. 에린도 보살피고 말이야.



8.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는 것이란다.



재미있는 봉사

자세히 보면 이 그림들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그림 두 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세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그림 사이에서 다른 점 다섯 가지를 찾아보세요.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한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다음과 같은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은 칠십인 제일 또는 제이 정원회의 회원이다.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전 지역 보조



윌터 에프
곤잘레스
1. 미 남동



엘 휘트니
클레이튼
2. 유타 북
3.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4. 유타 남



도널드 엘
홀스트롬
5. 미 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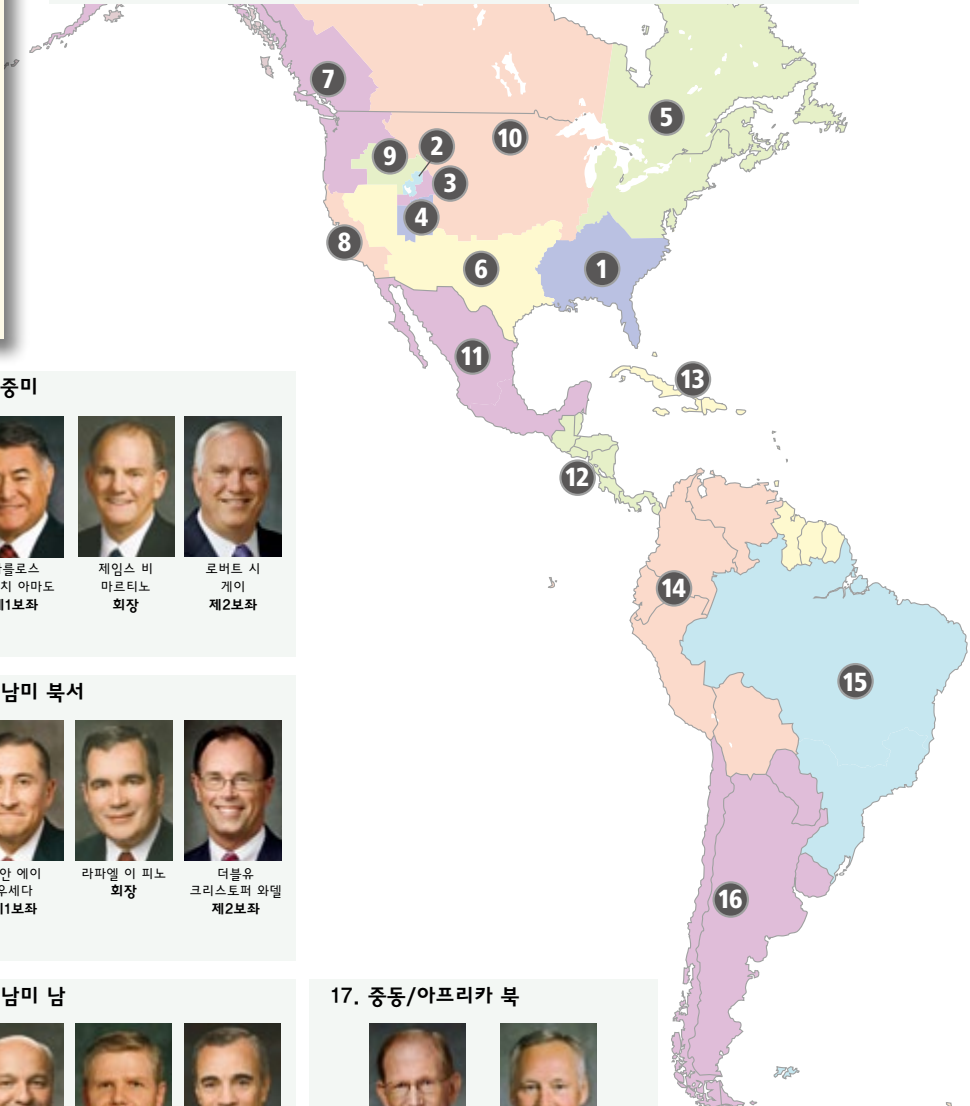
텍드 알
클리스터
6. 미 남서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7. 미 북서
8. 미 서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9. 아이다호
10. 미 중앙



11.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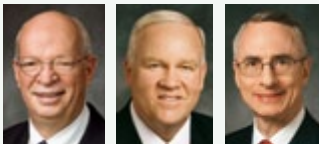
벤자민 데
호요스 제1보좌
다니엘 엘
존슨 회장
호세 엘
알론소 제2보좌

12. 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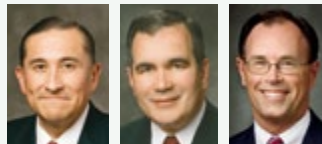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제1보좌
제임스 비
마르티노 회장
로버트 시
게이 제2보좌

13. 카리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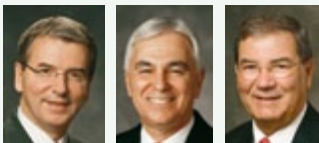
제이 데븐
크니쉬 제1보좌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회장
클라우디오
디 자빅 제2보좌

14. 남미 북서



후안 에이
우세다 제1보좌
라파엘 이 피노
회장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제2보좌

15. 브라질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자이로
마자가르디 제2보좌

16. 남미 남



조지 에프
제볼로스 제1보좌
머빈 비 아놀드
회장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제2보좌

17. 중동/아프리카 북



브루스 디 포터
브루스 에이 갈슨
교회 본부 관할

18. 유럽



패트릭 키아론 제1보좌
호세 에이 테제이라 회장
켄트 에프 리처즈 제2보좌

19. 유럽 동



랜들 케이 베넷 제1보좌
래리 알 로렌스 회장
페르 지 맘 제2보좌

20.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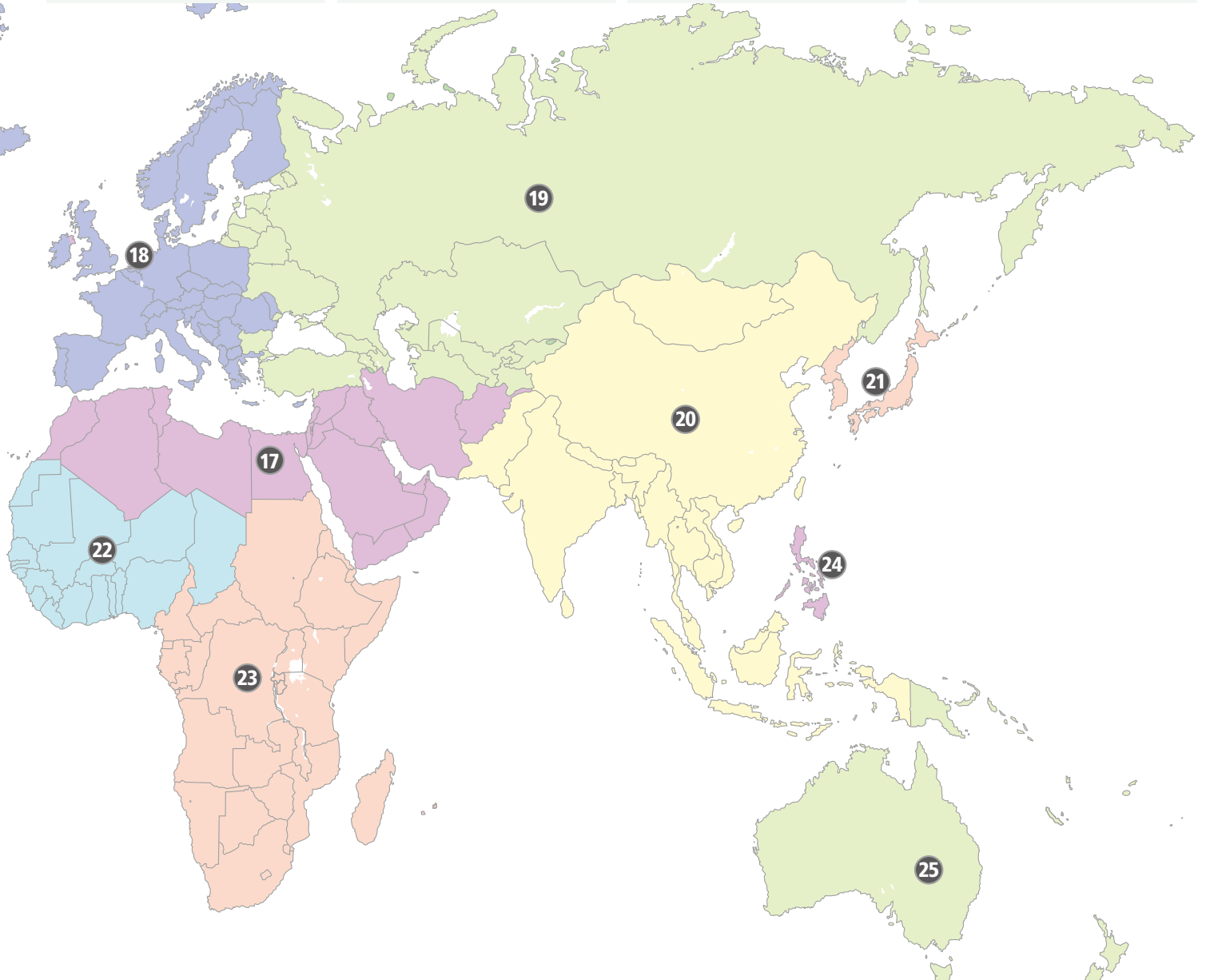


게릿 더블유 공 제1보좌
켄트 디 왓슨 회장
래리 와이 윌슨 제2보좌

21. 북 아시아



가즈히코 야마시타 제1보좌
마이클 티 링우드 회장
고이치 아오야기 제2보좌



22. 아프리카 서



조셉 더블유 시타타 제1보좌
존 비 디슨 회장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제2보좌

23. 아프리카 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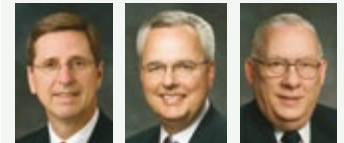
울리세스 소아레스 제1보좌
데이비지 랜런드 회장
칼 비 쿡 제2보좌

24. 필리핀



브렌트 에이치 닐슨 제1보좌
마이클 존 유 테 회장
이안 에스 아던 제2보좌

25. 태평양



케빈 더블유 피어슨 제1보좌
제임스 제이 해플러 회장
에프 마이클 왓슨 제2보좌

리아호나, 중국어 간체자로 발행된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간체자로 된 리아호나를 받아 볼 수 있다.

연차 대회호 두 부(5, 11월호)와 정기 간행호 네 부(1, 4, 7, 10월호)로 구성된 여섯 부의 리아호나가 매년 중국어 간체자로 발행된다. 2012년 1월호와 4월호는 인터넷상에만 게시되었고, 인쇄본으로는 5월호가 첫 번째이다.

날권 구매나 정기 구독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배부 센터로 연락하거나 store.lds.org에 접속한다.

교회 잡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표준 집중 조명

이번 달부터 교회 잡지에서는 새로 나온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에 실린 표준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이 연재물은 *New Era*(뉴이라)와 리아호나 청소년란에 여러 달에 걸쳐 실릴 것이다.(연차 대회호 제외) 서로 다른 표준을 다루는 각 기사는 본부 청남청녀 회장단이나 칠십인 정원회 일원이 쓰게 된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그 달의 표준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사가 한 쪽 분량으로 리아호나와 *Ensign*(엔사인)에 실린다. 또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주제가 초등회 어린이를 위한



세계 여러 지역의 중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간체자 리아호나가 발간되었다.

나의 복음 표준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될 때에는 리아호나와 *Friend*(프렌드)에 어린이를 위한 기사가 실리게 된다.

FamilySearch 색인 앱 출시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 위한 FamilySearch 색인 앱이 출시되어 휴대 기기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소중한 계보 기록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1940년 미국 인구 조사 색인 작업이 가능해진 것과 거의 같은 때에 출시된 이 앱은 애플

앱 스토어(iOS 기준), 또는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받을 수 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지원되는 이 앱을 사용하면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인구 조사 기록과 같이 손으로 쓴 역사적 문서에 나오는 이름, 장소, 관련 정보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보이는 것을 입력(색인)하기만 하면, FamilySearch 색인 시스템이 그 정보를 familysearch.org에서 제공하는 무료 계보 기록에 추가한다. ■



새로운 FamilySearch 색인 앱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가족 역사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열세 살 무렵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하루는 버려진 잡지를 여러 권 발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적들에 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잡지는 바로 *리아호나*였는데, 교회 회원이던 고모가 할머니 댁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잡지 속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 내용이 참되다고 말해주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1년 후에 저는 침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있으며, 이 잡지는 제게 지침과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 *리아호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계속해서 계시하신다는 증거입니다.(아모스 3:7 참조)

루실리노 멘돈사, 카보베르데

현세적 도움과 영적인 도움

저는 *리아호나*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리아호나*는 세계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도움이 됩니다. *리아호나*를 읽으면 신앙이 강해지고, 재능과 능력이 발전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교회 회원들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권고를 통해 정신과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데릭 발롤롱, 필리핀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출하신 내용은 명확한 표현과 분량 조절을 위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자연재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쪽: 이 기사를 미리 읽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런 다음 엘리스 장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가정의 밤을 활용한다. 비상 용품 한곳에 모으기, 가정 비축 식품 보충하기,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엘리스 장로가 전한 다음과 같은 위안의 메시지를 강조한다. “복음에 기반을 두고 준비를 하면 어떠한 폭풍우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다”, 42쪽: 기사 첫머리에 소개된 코세 감독이 교실에서 경험한 일을 소개할지를 고려해 본다. 자신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가족들에게 물어본다. 코세 감독이 자신의 간증을 굳게 지키기 위해 따르는

원리들을 다시 살펴볼 수도 있다.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6쪽: 가족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한다. “회개하고 나면, 언제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나서 기사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콜리스터 장로의 답변을 읽을 수 있다. 이 기사에서 가족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른 부분도 함께 나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66쪽: 몬스 회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읽어 준다. 그리고 나서 가족 중 어린아이들과 함께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이 살아 있는 선지자라는 간증을 전하면서 마친다. ■

.....

그림 같이 완벽한 가정의 밤

나는 늘 교회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가정의 밤을 꿈꿨다. 남편과 나는 예쁜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했는데, 웬일인지 그 아이는 가정의 밤에 참여하기를 꺼렸다. 그래서 우리는 딸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오던 가정의 밤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리아호나*에 나오는 가정의 밤 제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제 우리 딸은 가장 먼저 가정의 밤을 하고 싶어 하고, 가정의 밤을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우리 가족이 아주 좋아했던 공과 중 하나는 성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셋을 세면 거실로 나와서 주님이 그려진 그림을 찾아보게 했다. 그 그림에 가까워질 때는 아이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말해 줬고, 그림에서 멀어질 때는 ‘차가워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림을 찾자 딸아이는 아주 기뻐했다. 구주께 가까워지려면 영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딸아이가 이해하는 모습을 보자 놀라웠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1편 12절을 읽고 마무리를 지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 그 영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가정의 밤이 축복임을 배웠다. ■

모에마 리마 사에스 브로예델, 브라질

우리 종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마이클 오터슨
교회 공보부 관리 책임자

친 구들과 나누던 대수롭지 않은 대화가 내 개종 이야기로 옮겨간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이다.

몇몇은 흥미를 보였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지만 몇 명은 무관심했다. 내 포레인 한 여자아이는 아주 단호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바로 그때가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하고자 애쓴 첫 번째 경험이다. 어떤 논리로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닫힌 마음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며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느 주요 종교들처럼 우리 교회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를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교회 회원들도 자신과 종교가 다른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과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이야기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염두에 두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질문과 의견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한다

충실한 교회 회원이 누리는 큰 이점

중 하나는 우리 신앙이 “우리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격려한다는 점이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진실성을 느낀다.

후기 성도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교가 후기 성도의 생활이라면, 설사 사람들이 경우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하고 열린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주장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믿음과 일치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질문이나 비난에 응할 때는 여유있게 넘기는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유머 감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

2007년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졸업식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단순히 복음 원리를 공부하기보다 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공부와 실천을 결합함으로써 얻은 그 특별한 지식 덕분에 여러분이 참되다고 아는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세운다

우리 종교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에

답할 때, 대화의 시작부터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저러하게 이어지는 질문에 단순히 답하기보다는 처음 30초 동안 기초를 다져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를 다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탄생, 삶, 성역,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계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로부터 멀어졌으며, 이에 따라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회복될 필요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본 믿음을 제시하면, 주제가 바뀌어 복음의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더라도 토론의 기준점이 생기게 된다.

정보를 모은다

질문을 듣는 동안 회원들은 그 질문의 핵심과 직결되는 복음 원리를 분별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구주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들을 보내는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그분의 사자들을 둘씩 짝지어 “온 천하에”



질문에 답할 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준비한 답변을 외워서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보내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한다. 왜 우리는 혼전 동거를 옳지 않다고 보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결혼의 성스러움 및 그와 연관되는 모든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천하려는 원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왔으므로, 복잡하고 세련된 세상적인 논쟁을 펼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다

친구의 질문에 답하는 일은 준비한

답변을 외워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진실한 경험을 나누다 보면 영을 초대하여 영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증거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을 나누는 데 큰 방해거리 중 하나는 우리가 답을 모를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다른 교회 사람 중에서도 그들의 역사나 교리에 관해 전문가인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후기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에 관해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인터넷 자원

교 회에서는 회원들이 궁금증을 표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 인터넷 자원을 개발했다.

- Mormon.org
- Mormon.org/Jesus Christ
- Mormonnewsroom.lds.org
- LDS.org
- Liahona.LDS.org



친구의 질문에 답할 때, 평소처럼 행동한다. 여러분이 평소에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리나 역사에서 잘 모르는 부분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고 대답해도 괜찮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 종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할 수 있다.

기도, 금식, 가족과 효과적으로 대화한 일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경험은 우리의 것이고, 누구도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잘 파악한다

몇몇 사람들은 혹 삼십 분짜리 설교에 발목을 잡힐까 봐 회원들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가벼운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의 관심사, 친밀도, 이해 수준을 민감하게 고려한다. 대화의 시작부터 세심한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궁금한 점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대화 방식이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사람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눈다

교회 회원들에게는 우리와 무관한 오해를 해결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관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선한 영향을 발휘할 전례 없는 기회가 있다.

사람들은 후기 성도의 믿음에 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분명한 차이점을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생각지 못한 공통점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더 나은 관계를 이룩할 토대가 된다. ■

유익한 조언

좋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 종교에 관해 캐물으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저 궁금해서 그럴 뿐이다.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귀 기울여 듣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경청할 때 분별의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질문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질문을 하고, 말하는 만큼 들을 준비를 한다.

선택의지를 존중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도덕적 선택의지를 받았다. 따라서 권유하고 때로 설득할 수는 있겠으나 압력을 주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교회 용어 사용을 피한다

‘와드’, ‘가정의 밤’, ‘지혜의 말씀’과 같이 상대가 이질감을 느낄 만한 후기 성도만의 특수한 용어 사용을 피한다. 이런 용어를 쓸 때에는 상대가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해 준다.

교회 이름을 생략하지 않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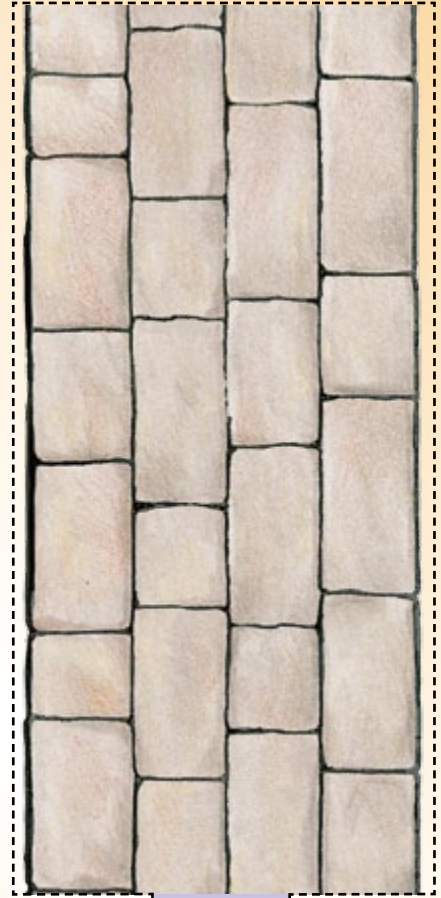
가능하면 대화 초반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 이름 전체를 생략하지 않고 말한다. 교회 이름에는 힘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설명해 준다. 그것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물

해 리아호나에는 몰몬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쉽게 또 오래 쓰려면, 각 인물을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나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세요.



사무엘



레이맨인 사무엘
힐라맨서 13~14, 16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몬슨 회장은 매일의 삶에서 신성한 도움을 구하며 봉사하라는 부름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직접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의무가 따르는 부름에 응하면서”, 14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